

**KDB DAEWOO SECURITIES
ANNUAL REPORT FY2011**





KDB대우증권 2011 회계연도 ANNUAL REPORT를 발행하며

본 보고서는 종이 보고서와 PDF 보고서 두 가지 버전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종이 보고서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작 과정에서 다량의 펄프와 자원,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PDF 보고서를 활용하면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가꾸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앞으로 PDF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간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선도해온

KDB대우증권은 세계적 수준의

종합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원대한 꿈을

가슴에 담고 아시아의 Pioneer IB로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KDB대우증권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CONTENTS

회사 일반 현황

- 04 _ 2011 Highlights
- 08 _ 회사개요
- 10 _ 비전 및 경영방침
- 11 _ 소비자보호현장
- 12 _ CEO's Message

Financial Statements

- 41 _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47 _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53 _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검토보고서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 25 _ 경영환경/개요
- 27 _ 부문별 영업실적
- 34 _ 재무현황
- 35 _ 영업용순자본비율
- 35 _ 리스크 관리

56 _ 연혁

57 _ 조직도

58 _ 국내 지점 현황

60 _ 해외 영업망

Management Innovation

2011 Highlights

성공적인 자본 확충으로 신용등급 'AA+'로 상향

KDB대우증권은 11월 1조 1,24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업계 최대 규모인 4조 원에 달하는 자본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자본 확충으로 신용등급은 'AA(긍정적)'에서 한 단계 상향되어 금융투자업계 최고 등급인 'AA+(안정적)'를 획득하며 미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였습니다. KDB대우증권은 확충된 자본력과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금융시장 진출 강화, 신규 사업 투자 확대, IT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Key Player로서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것입니다.

'KDB대우증권' 커뮤니케이션 사명 도입

KDB금융그룹의 Visual Identity 가치 통일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KDB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접목시켜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9월 9일 'KDB대우증권'으로 커뮤니케이션 사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KDB금융그룹 내에서 투자 은행부문을 담당하는 주요 계열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계열사 간 매트릭스 형태의 업무 협조를 통해 KDB산업은행의 탄탄한 기업금융 역량과 KDB대우증권의 자본시장 역량을 결합한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tail 혁신 시행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선도해온 KDB대우증권 Retail사업부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객과 직원, 회사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금융을 한 단계 Level-Up시키겠다는 큰 꿈을 안고 Retail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군제도, 영업프로세스, 교육시스템, 성과 및 보상체계 개편 등 기존의 사고와 틀을 깨는 새로운 변화와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여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

고객우선 책임경영, 공평하고 공정한 고객대우,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투명성 강화, 고객 바로알기, 금융교육 제공, 고객지향적 보상체계, 고객자산 및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10월 29일 선포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은 최근 OECD가 마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일반원칙(안)을 참고해 국내 시장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고객중심경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겠다는 KDB대우증권의 대고객 마인드 혁신 정책의 일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사명 도입

New Businesses & Services

스마트폰 투자정보 어플리케이션 'Smart 나침반' 출시

스마트폰 투자정보 어플리케이션인 '스마트(Smart) 나침반' 을 2012년 4월 2일 출시했습니다. 스마트 나침반은 업계 최초의 투자정보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KDB대우증권의 리서치자료나 금융상품 등의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이에 앞서 2012년 1월 16일에는 스마트폰 증권거래 어플리케이션인 '스마트 네오(Smart Neo)' 의 화면색상 및 메뉴 구성을 리뉴얼하고 담당PB 연결기능 등 고객편의 기능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KDB DAEWOO Korea Conference 2012 개최

KDB대우증권은 2012년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KDB DAEWOO Korea Conference 2012'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국내 40여 개 기업이 참석해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IR 활동을 실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국내 우량기업들의 CEO·CFO 및 IR 담당 임원이 참석해 국내외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1대1 또는 소그룹 미팅 방식으로 기업의 경영전략을 설명함으로써 국내 대표 기업과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간 뜻 깊은 소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중국 등 다양한 해외투자상품 출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글로벌 채권신탁-브라질'을 6월 28일 출시한 데 이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중인 중국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차이나 라이징 랩(China Rising Wrap)'을 2012년 3월 8일 출시했습니다. '차이나 라이징 랩'은 현지 운용사인 하이푸통 자산운용(HFT Investment Management)으로부터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포트폴리오를 자문 받아 홍콩, 상해B, 심천B 시장에 투자하는 해외자문형 랩입니다. KDB대우증권은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투자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DB 산업은행 산업금융채권 위탁 판매 개시

KDB금융그룹의 시너지 효과 및 상품 다양화를 위해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함께 갖춘 산업금융채권(이하 산금채)을 10월 28일부터 위탁 판매하였습니다. 산금채는 KDB산업은행에서만 발행 가능한 채권으로, KDB산업은행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best산금채를 위탁받아 판매하였습니다. 이번 산금채 위탁판매는 KDB대우증권의 고객기반을 확대하고 KDB산업은행의 수신 기반을 넓힐 수 있어 KDB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나침반' 출시



KDB DAEWOO Korea Conference



산업금융채권 위탁 판매 개시



Global Business

2011 Highlights

북경투자자문사 설립 및 동경지점 승격 개소

북경투자자문사 설립과 동경사무소를 승격한 동경지점을 개설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자본금 500만 달러 규모로 8월 21일 설립한 북경투자자문사는 중국 기업의 IPO, M&A, 투자유치 관련 자문활동 등에 주력하게 되며, 중국 경쟁력 강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 30일 승격한 동경지점은 한일 기업 간 M&A와 IPO 주식자금 조달 등 자본교류를 증대할 교두보로 활용하게 되며, 이번 지점 승격을 통해 일본 기관투자자에 대한 직접 영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홍콩현지법인인 2억 달러 증자 및 'Global Trading Center' 개설

2010년 홍콩에 APHQ(Asia-Pacific Headquarters)를 신설한 KDB대우증권은 2011년 12월 6일과 2012년 5월 3일 홍콩현지법인에 각각 1억 달러를 증자해 자본금을 3억 달러로 확충하는 한편, 2012년 2월 10일 국내 증권사 최초로 홍콩에 'Global Trading Center'를 개설하여 외화채권 운용 노하우 및 자체 운용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콩현지법인은 자본금 확충을 계기로 자체 수익 기반이 더욱 강화되어 신규 비즈니스 진출 여력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시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Global Alliance 강화

해외 금융사와의 업무 협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자본시장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스웨덴 헤지펀드 운용사 IPM 및 영국의 헤지펀드 운용사 마샬웨이스 그리고 미국의 머큐리캐피탈과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 이들 회사의 상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터키 최대 증권사인 이쉬인베스트먼트 사와 기업금융, 자산관리, 주식중개, 이슬람금융 및 리서치자료 공유 등 금융투자업 전 부문의 상호간 협력을 위한 MOU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선도적 상품, 차별화된 운용 전략, 독보적 세일즈 역량

KDB대우증권은 차별화된 은퇴설계의 방향을 제시한 골드에이지 상품 개발로 제7회 매경 금융상품대상' 금상과 '2011 헤럴드경제 자본시장대상' 투자상품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제7회 KOSDA(파생시장협의회) 어워즈에서 증권 부문 최우수 파생금융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제3회 한국IB대상에서 파생상품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KDB대우증권의 시장선도적인 상품 개발 능력과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운용 전략, 독보적인 세일즈 역량은 다양한 수상 실적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Recognition

동경지점 개소식

東京支店 開業式



홍콩 글로벌 트레이딩 센터





환경 베스트 증권사 선정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 평가 위상 제고

KDB대우증권은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 증권사·애널리스트' 에서 2011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베스트 증권사·애널리스트·법인영업팀으로 선정되는 3관왕을 차지하며 2008년 이후 무려 8회 연속 최고 증권사에 선정됨으로써 국내 최고 증권 평가의 명성과 전통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ABS 시장 침체에도 1조 원에 달하는 대형 딜을 성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 코리아 캐피탈마켓 디벨 리그테이블 어워드' 에서 주관사 능력평가 1등을 차지하며 Best ABS House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Corporate Citizenship



엄마 아빠 나라말 경연대회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전개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을 위한 요리달력과 한국 가정요리 책자를 발간해 무료 배포해 왔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총 10개 국어로 번역된 요리 책자를 정식 출간하였으며 이 책자의 판매수익금 전액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다문화가정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는 KDB대우증권은 다문화가족 무료병원 5곳과 전국 10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제1회 다문화가정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와 제1회 엄마·아빠 나라말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2011 전국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 에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DR공고 봉사활동

아프리카 공고 사회공헌활동

KDB대우증권은 국내 기업 자체 활동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 콩고)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미래경영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봉사활동에서 임직원 20여 명은 킌사사 주의 멘카오 마을과 반둔두 주의 몽기타 마을을 찾아 트랙터, 쇠스랑 등 농기구와 식량을 전달하고 마을주민과 함께 주변 도로를 포장하는 한편, 이들에게 자립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 KDB대우증권은 아프리카에서 기부 및 봉사활동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기부 박람회 참가

미래 인재 양성 위한 교육기부 활동 참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1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기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교사 대상의 '실용 경제금융 전문가 과정' 과 초·중학생 대상의 '주니어 파이낸스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개최된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에 금융업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금융투자나무 키우기, CEO게임, 나에게 맞는 금융분야 직업찾기 등 미래 꿈나무들에게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현황

업종	금융투자업
사업부문	위탁매매, 기업금융, 종합자산관리, 세일즈앤트레이딩
설립일	1970년 9월 30일
상장일	1976년 9월 26일
대표이사	임기영
임직원 수	3,140명(2012년 3월말 현재)
국내영업망	107개 지점(1 영업부, 3 PB Class, 15 WM Class, 88 지점)
해외영업망	3개 현지법인(홍콩, 뉴욕, 런던), 1개 자문사(북경), 1개 지점(동경), 3개 사무소(호치민, 북경, 상해)
본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빌딩

재무 현황

(단위:억 원)

	FY11	FY10	FY09
영업수익	30,243	35,735	45,919
영업비용	28,129	32,740	41,799
영업이익	2,114	2,994	4,120
세전이익	2,224	3,159	4,231
당기순이익	1,669	2,259	3,191
자산총계	224,634	194,119	175,038
부채총계	184,905	166,804	146,478
자본금	17,039	10,209	10,209
자본총계	39,729	27,315	28,560
BPS (주당순자산) (원)	12,343	14,754	15,024
PBR (주가순자산비율) (배)	1.07	1.5	1.4
EPS (주당순이익) (원)	632	1,044	1,567
PER (주가수익비율) (배)	20.89	21.5	13.0
ROE (자기자본비율) (%)	5.0	8.1	11.9

- FY2011, 2010은 K-IFRS 연결기준임
- PBR, PER은 당해 회계연도 말 주가기준임
- 2012년 3월 31일 종가 13,200원

주가 정보

발행주식 수 (단위:주)

보통주

326,700,891

우선주

14,075,750

신용등급

한기평, 한신평, 나신평

AA+Stable

Moody's

Baa2 Stable

지분 구성

2012년 3월말 보통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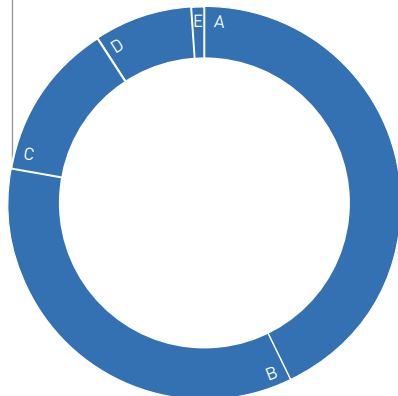
A KDB금융지주 43.0%

B 개인 34.7%

C 외국인 11.6%

D 기관 9.3%

E 자사주 1.4%



KDB금융그룹 비전

아시아 Pioneer 금융그룹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일을 성취해 내는 Pioneer 정신으로 한국 금융의 새 길을 열어가는 금융그룹

KDB대우증권 비전

아시아의 Pioneer IB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고 핵심역량을 확보하여 Asia Top-Tier 그룹에 진입

KDB대우증권 경영방침

지속적 혁신수행

점차 짧아지고 있는 시장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합니다.

고객과 동행발전

고객의 요구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합니다.

자본시장 Pioneer

Leading 금융투자회사로서 금융정책 결정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시장에서 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적극적 해외진출

기존 거점을 강화하고 Asia Emerging Market 중심으로 추가 거점을 확장합니다.

KDB대우증권 금융소비자보호현장

1

(고객우선 책임경영) 우리 KDB대우증권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핵심 경영목표로 삼는다.

2

(공평·공정한 처우) 우리 KDB대우증권은 금융소비자를 언제 어디서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한다. 특히, 당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책정한다.

3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우리 KDB대우증권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취약계층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다.

4

(고지와 투명성) 우리 KDB대우증권은 판매 또는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핵심 정보들을 금융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

5

(고객 바로 알기) 우리 KDB대우증권은 상품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금융거래 목적, 금융 지식과 경험 및 현재 욕구를 충분히 평가하고 분석한다.

6

(금융교육 제공) 우리 KDB대우증권은 현재 또는 잠재 금융소비자가 금융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 요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채널과 방법을 제공한다.

7

(고객지향적 보상체계) 우리 KDB대우증권은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급여 및 성과보상 체계를 설계한다.

8

(고객자산 보호) 우리 KDB대우증권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이 사기, 배임,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내부통제 및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9

(고객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우리 KDB대우증권은 금융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적절한 내부통제 및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내부통제 및 보호장치에는 고객 데이터가 수집, 가공, 공유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CEO'S MESSAGE

2011 회계연도는 금융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위기의 등장으로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에도 미국, 중국을 포함한 60여 개국 지도자가 새롭게 선출되는 등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금융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선점한다면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에게는 금융영역과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2 회계연도 KDB대우증권은 대한민국 리딩 금융투자회사로서 금융 국가대표라는 원대한 사명을 품고 '아시아의 Pioneer IB'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CEO's message

존경하는 주주 및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KDB대우증권을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1 회계연도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미국의 사상 첫 신용등급 강등,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증시 여건이 악화되었고, 국내 경제성장을 또한 3%대에 그치는 등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당사는 2009년부터 전 사업부문에 걸친 혁신 과정을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 1,669억 원의 업계 상위권 실적을 기록하였지만, 사업 전반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국내 최고의 금융투자회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먼저 KDB금융그룹의 일원으로 시너지 창출 및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KDB대우증권'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사명을 도입하였습니다. 또, 1조 1,242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며 국내 금융투자업계 최고 신용등급을 업계 최초로 획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들을 통해 2011년 12월 본격 출범한 헤지펀드 시장에서도 PBS업계 선두주자로서 초기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의 주요한 사업인 Retail부문을 'Brokerage와 Wealth Management의 균형 잡힌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직군제도, 고객관리, 영업프로세스, 교육시스템, 직원평가와 성과보상체계 등 영업 현장 및 본사 Retail Staff 조직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인자산 4조 원을 순유치하는 성과는 물론 AFPK, CFP 자격시험에서 증권사 전체 합격자의 60%와 39%를 각각 배출하는 등 영업직원들의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업계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KDB대우증권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해외사업부문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APHQ 전략의 일환으로 2011년 12월과 2012년 5월 각각 1억 달러(USD)의 증자를 통해 홍콩현지법인의 자본금을 홍콩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 중 최대 규모인 3억 달러(USD)로 증대하였습니다.

2012년 2월에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홍콩에 'Global Trading Center'를 오픈하여 외화자산 운용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홍콩현지법인 자체운용 Book과 본사 외화자산의 통합 운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G7 채권 등 새로운 투자기회의 모색과 운용자산의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및 고객 여러분,

2011 회계연도는 금융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위기의 등장으로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에도 미국, 중국을 포함한 60여 개국 지도자가 새롭게 선출되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금융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선점한다면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에게는 금융영역과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2 회계연도 KDB대우증권은 대한민국 리딩 금융투자회사로서 금융 국가대표라는 원대한 사명을 품고 '아시아의 Pioneer IB'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간 홍콩을 중심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본사와 해외 거점들 간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해 Equity Sales, IB, Sales & Trading 등 사업부문별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활동 시스템을 정착시켜 왔으며, 수익 중심의 점진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부문의 수익 창출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 거점의 현지화와 독자적인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보다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수익성 중심의 내실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사업부문에서 그동안 축적한 조직과 개인의 역량, 자산, 고객기반 등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또한 시장과 고객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우리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실천할 것입니다.

신규 사업 및 프로젝트 투자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투자를 최소화하고, 최적화된 자원투입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DB금융그룹과 사내 부문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따라 가는 것조차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법은 각 부문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순간순간의 이익과 편의에 안주하기 보다는 긴 안목과 넓은 시각에서 그룹 내, 부문 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배양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주주 및 고객 여러분,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고 했습니다.

2012년 우리 앞에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KDB대우증권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KDB대우증권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키워온 기초체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실행과 용기 있는 도전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혁신과 글로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아시아의 Pioneer IB’ 로 도약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최고 금융투자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KDB대우증권에 주주 및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DB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 임기영



풍부한 자본력과 인적자원

업계 최대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KDB대우증권은
풍부한 자본력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동안 키워온 역량과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사업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4 조 원

자기자본 업계 NO.1

업계 최대 규모의 종합자산관리 잔고

고객과 동행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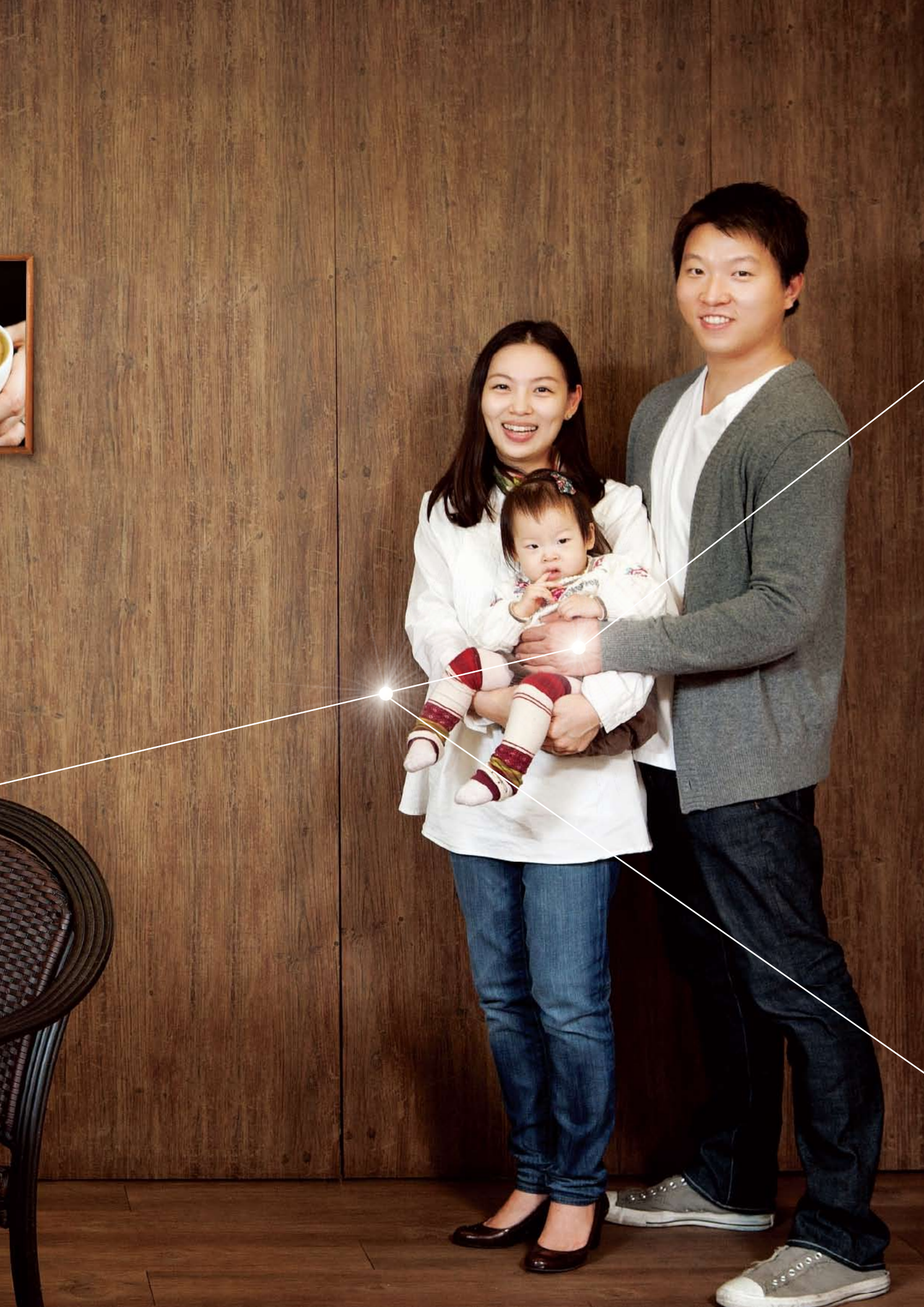
고객과의 Relationship을 강화하여 고객의 요구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양질의 금융서비스로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47

 조 원

종합자산관리 잔고 업계 NO.1







廣港旅遊有限公司



PIONEER OF ASIA

1994년 국내 증권사 최초 홍콩 현지법인 설립에 이어
홍콩 진출 국내 증권사 중 최대 규모인 3억 달러로
자본금을 확충한 KDB대우증권은
홍콩과 본사 간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시장의 지속적인 발돋움
통해 해외사업에서 성공신화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US **3** 억 달러
홍콩법인 자본금 규모
국내 증권사 중 NO.1



A group of African children, some holding a sign for KDB Daewoo Securities. The children are smiling and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sign is white with blue text and a logo.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showing more children and a hand holding a smartphone.

꿈과 희망을 세계로

아프리카 DR콩고에서 꽃피운
KDB대우증권인의 사랑!

농기구 지원 및 도로 포장 공동작업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콩고인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을 세계와 함께 키워갑니다.
우리의 시각과 사고를 세계로 확장해 나갑니다.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경영환경 / 개요

부문별 영업실적

재무현황

영업용순자본비율

리스크 관리

1. 경영환경

2011 회계연도의 KOSPI는 2천선을 가까스로 지키며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양호한 유동성 여건과 실적 호조세를 바탕으로 크게 상승했던 지난해의 분위기를 이어받아 회계연도 초반 KOSPI는 2,200pt를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분기 들어 미국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과 튀어온 S&P의 사상 첫 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 리스크 부각 등의 영향으로 2,100선을 넘던 KOSPI는 일주일 만에 장중 1,600pt대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이처럼 2008년 글로벌 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빠르게 커졌고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은 두 차례에 걸쳐 1조 유로가 넘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실시하면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파산 리스크는 줄어들었고 금융시장의 분위기도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KOSPI 역시 전기전자 업종 주도로 반등을 이어갔고,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2천선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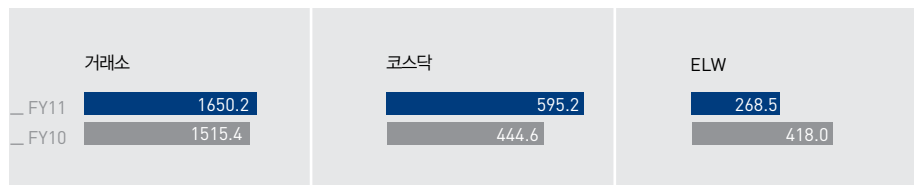
2011년에는 선진국의 경기 및 재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음식료, 전기전자, 섬유 의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부진했던 증시에서 시장을 주도하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로 60만 원대까지 급락했던 삼성전자는 이후 빠르게 회복했으며 회계연도 후반에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30만 원을 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시장 전체의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과도한 쏠림에 대한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등 투자심리의 위축도 컸습니다.

2011 회계연도 KOSPI는 2,014.04pt로 마감하면서 전년 대비 4.4% 하락했고, KOSDAQ 역시 519.56pt로 전년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KOSPI 일평균 거래대금은 6.6조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9% 가량 증가했고, KOSDAQ의 거래대금은 2.4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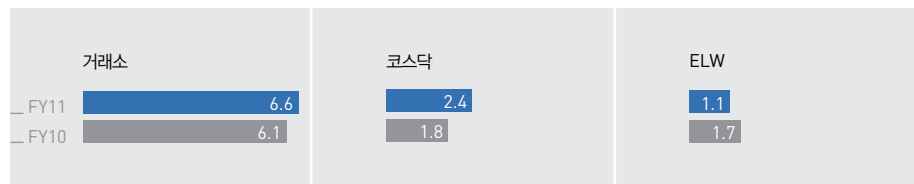
2011 회계연도에 외국인은 5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유럽 재정 리스크, 미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매도세를 나타냈던 외국인은 4분기 들어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대규모 매수세를 나타냈고, 글로벌 위기 이후 세 회계연도 연속으로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여전히 글로벌 위기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며 시장을 외면했습니다. 개인은 8조 원을 순매도했고, 투신 역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의 자금이탈 부담으로 5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위기 이후 새로운 위기의 등장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형펀드와 자문형 랩 모두 부진한 자금 유입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ELS/DLS 등의 파생결합증권의 총 시장발행금액은 전년대비 16조 원이 증가한 55조 원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투자 대안으로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 총 거래대금 (단위:조 원)



일평균 거래대금 (단위:조 원)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2.개요

2011 회계연도 KDB대우증권은 3조 243억 원의 영업수익과 2,224억 원의 세전순이익, 1,66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2011 회계연도 말 총 자산 22조 4,634억 원, 총 부채 18조 4,905억 원과 3조 9,730억 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조 1,242억 원의 자본을 확충하여 3조 9,729억 원의 업계 최대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Brokerage 수익은 3,845억 원으로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Retail 혁신 전략을 본격 실행하여 PB 영업 역량의 강화와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고객기반 확대에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자산 순증 4조 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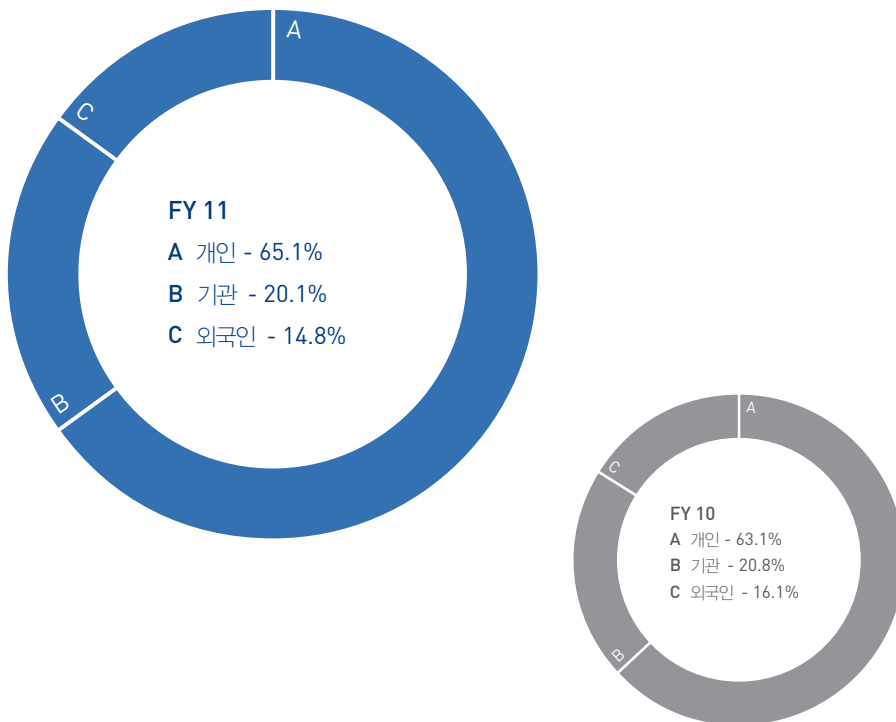
WM 수익은 1,008억 원으로, 당사 최초 1천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파생결합증권, Wrap, 수익증권, 신탁/연금 등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자산관리상품 총 판매잔고는 47조 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B 수익은 43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익 기여도가 높은 ECM 시장의 침체에 따라 수익성은 다소 저하되었으나,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에서도 주요 딜을 주도하며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유상증자, ABS 부문에서 2위, IPO 부문에서도 3위를 기록하는 등 KDB대우증권이 전통의 IB 강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Sales&Trading 손익은 2,31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로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주식시장의 약세와 Yield Curve Flat 심화 등 운용 환경이 악화되었으나 시의적절한 헤지 전략과 외화채권 포지션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하며 최고의 Trading House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조 1,242억 원의 자본을 확충하여
3조 9,729억 원에 달하는
업계 최대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시장전체 투자자별 거래비중



3. 부문별 영업 실적

1) BROKERAGE 부문

2011 회계연도 Brokerage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480억 원 감소한 3,84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거래대금이 전년대비 6% 가량 증가하며 시장 규모면에서는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지수의 부진한 흐름과 MTS 등 온라인 거래비중의 확대는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Retail 혁신 전략 초기의 과도기를 거치며 시장점유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3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etail Brokerage

Retail 혁신 추진 | KDB대우증권은 'Brokerage와 Wealth Management의 균형 성장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Retail'을 만들기 위해 2011년 Retail 혁신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Retail 혁신은 직군제도, 고객관리, 영업 프로세스, 교육시스템, 직원평가와 성과보상체계 등 Retail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영업 현장 및 본사 Retail Staff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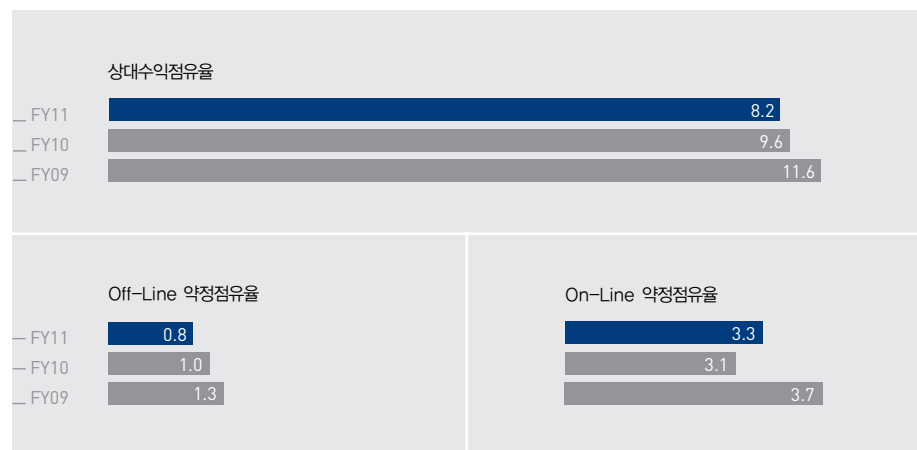
직군 제도를 IM/WM 직군제도에서 PB 직군제도로 단일화하였으며, 1고객 1관리자 제도 및 표준화된 영업프로세스 정착을 통해 대고객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본사 Retail Staff 조직은 PB컨설팅부를 신설해 PB 영업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고객관리를 체계화하였으며, 세무, 부동산, 방카슈랑스 등의 전문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개발 및 공급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골드에이지'와 같은 선도적인 금융상품을 출시하였고 Retail 전담 리서치 조직을 신설해 양질의 투자정보를 신속히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남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점포 효율화와 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

고 고객중심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개인자산 4조 원 순유치 성과를 나타냈으며 AFPK, CFP 자격시험에서 증권사 전체 합격자의 60%, 39%를 각각 배출하는 등 영업직원들의 역량 또한 배가되었습니다. 더불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업계 최초로 '금융소비자 현장'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구분		FY11	FY10	FY09
수익	전체수익점유율	6.2	6.9	8.7
	주식수익점유율	5.7	6.4	8.1
	선물수익점유율	0.2	0.2	0.2
	옵션수익점유율	0.2	0.3	0.3
약정	주식약정점유율	5.6	6.0	7.2
	선물약정점유율	4.8	4.6	5.9
	옵션약정점유율	1.7	2.5	3.8

Retail Brokerage 점유율 (단위:%)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HTS 및 MTS 경쟁력 강화 | 2011년 3월 HTS 화면 최적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신다이렉트 HTS 구축, Qway-NEO ETF 화면 개선, 알림톡톡 서비스 개발 등으로 HTS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11년 On-Line 수익 금액은 전년 대비 7.0% 증가하며 개인의 주식시장 거래비중 증가율 2.0%를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수익 점유율도 확대되는 등 Retail 혁신으로 인한 과도기에 Retail 수익의 안전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MTS 경쟁력 강화를 위해 SmartNEO를 개설, 스마트폰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증권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HTS 수준의 차세대 스마트폰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MTS 월평균 이용고객 수가 전년 대비 74.4%로 대폭 증가하여 월평균 전체 온라인 활동 고객 수가 8.7%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법인 Brokerage

KDB대우증권의 법인 Brokerage 부문은 브로커의 탁월한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적시성 높은 투자 아이디어 제공, 트레이더의 신뢰성 높은 매매체결 능력 등에 힘입어 주요 법인고객들로부터 최고의 거래증권사로 평가 받은 것은 물론 한경비즈니스로부터 14반기 연속 베스트 법인영업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법인 상대약정점유율은 2011 회계연도 기준 4.6%를 기록하며, 대형 자산 운용 계열사 부재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최고의 법인 Brokerage 증권사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국제 Broke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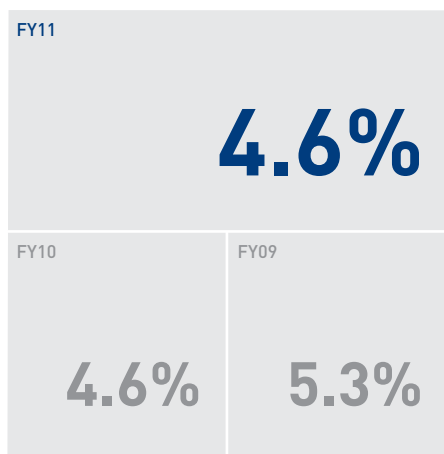
국제 Brokerage 부문은 2011년에도 외국인 기관투자자 대상 주식영업 부문에서 선두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영업력 및 수익성 개선 등 질적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사, APHQ 및 각 거점 간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영업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특히 동경사무소의 지점 승격, 상해사무소 개소 등에 맞추어 현지 영업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니어 세일즈인력 양성 등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국제영업 사관학교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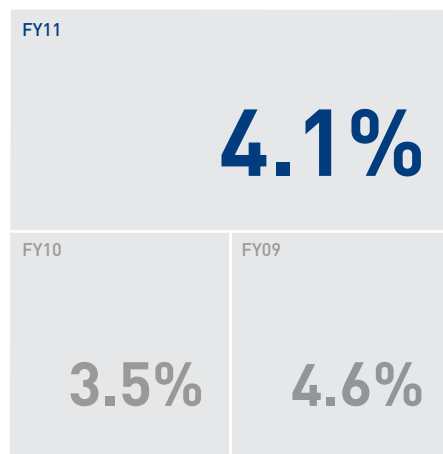
의미 있는 성과로는 2012년 3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KDB DAEWOO Korea Conference'를 성공리에 개최한 것입니다. 국내 주요 41개 기업과 국내외 64개 기관의 만남의 장이 된 이번 행사는 특히 CEO, CFO 미팅을 통해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였으며, 향후 매년 정기적인 개최를 통하여 당사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내 대표 Conference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법인 Brokerage 부문은 탁월한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적시성 높은 투자 아이디어 제공, 신뢰성 높은 매매체결 능력에 힘입어 한경비즈니스로부터 14반기 연속 베스트 법인영업팀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내법인 약정점유율 (단위:%)



국제법인 약정점유율 (단위:%)



PBS (Prime Brokerage Service)

2011년은 12월중 헤지펀드(Hedge Fund) 시장 출범과 더불어 Prime Brokerage Business의 개막을 알리는 원년이었습니다. PBS 부문은 신규 비즈니스 영역인 Prime Brokerage Service 제공 인프라의 조기 구축 및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를 위하여 2011년 초부터 관련 준비 및 내부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외활동 및 TF 참여로 업계 Opinion Leader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PBS 부문은 3개 운용사 헤지펀드의 Prime Broker로 선정되어 향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고 2012년 1분기 현재 업계 선두주자로서 초기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 향후 국내 고객들의 해외자산 취득 및 운용전략 지원을 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 Line-Up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IB 부문

2011 회계연도 IB 부문 영업수익은 436억 원으로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주가 변동성 증대와 기업 투자 감소에 따라 수익기여도가 높은 ECM 시장이 침체되었기 때문입니다. DCM 시장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발행물량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왜곡된 수수료 구조로 인해 수익 기여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KDB대우증권은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시장점유율 기준 유상증자, ABS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하였으며, IPO 부문에서도 3위를 기록하는 등 전통의 IB 강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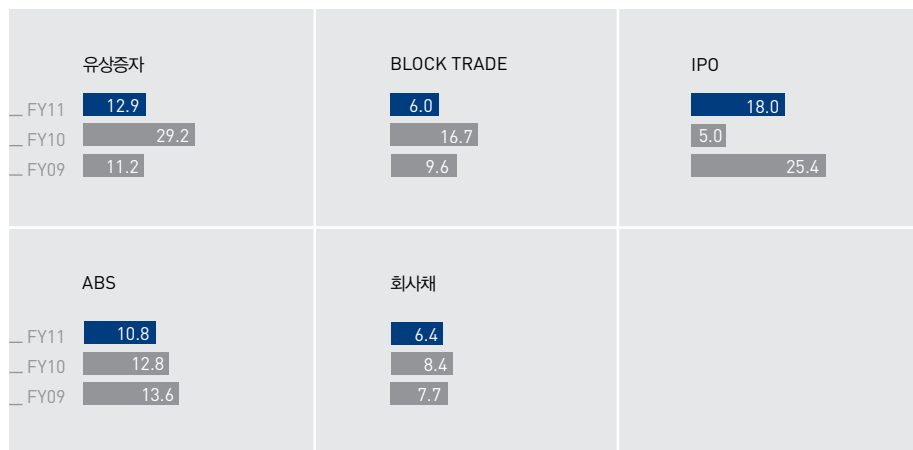
IB시장의 주요 Deal 주도하며 업계 수위의 Track Record 축적

ECM 부문 _ 유상증자 부문에서 두산그룹 Package Deal(7,200억 원), 한진해운 유상증자(3,000억 원), STX 유상증자(1,700억 원),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643억 원)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주요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자본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사에 대한 시의적절한 자금조달을 완료함으로써 IB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Block Sale에 있어서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적절한 매각시기 자문을 통해 금호석유화학(4,090억 원), 대우건설(1,229억 원), BS금융지주(824억 원) 등 대규모 Block Sale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Block Sale 부문 강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IPO 부문에서도 하이마트(4,200억 원), 휴비스(2,001억 원), KT Skylife(425억 원), 코오롱플라스틱(374억 원) 등 대기업 IPO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와이즈엔터테인먼트(423억 원) IPO에는 지난 10년간 코스닥 IPO 중 사상 최고 청약증거금인 2.8조 원이 몰리는 등 업계 수위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기업금융(IB) 부문별 시장점유율 (단위:%)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DCM 부문 _ ABS 부문에서는 업계 최고의 구조화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내 주요 딜을 주도하였습니다. LH 임대채권유동화(1조 원), SH공사 토지매출채권 유동화(5,000억 원) 등 정책성 딜을 성공적으로 주관하였고, 신용보증기금 P-CBO(3,500억 원), 기술보증기금 P-CBO(1,500억 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 하나SK카드 단말기할부대출채권 유동화(누적 4조 원) 등 주요 빅딜을 주관하며 유동화증권 명가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회사채 부문 역시 GS에너지(6,000억 원), 동국제강(4,700억 원), 현대제철(4,000억 원), GS EPS(3,500억 원), GS칼텍스(3,500억 원) 등 주요 빅딜을 대표주관하며 업계 강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회사채 제도 개선 관련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표주관수수료 정립 등 업계 리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 KoFC Global Bond(USD 7.5억), KEXIM Global Bond(USD 22.5억) 및 KDB 링깃채(MYR 5억) 발행에 참여하며 해외 IB가 독점하고 있는 Global Bond 부문에서 Track Record를 축적하였고, KT(USD 1억), 대한항공(USD 2억), 한국전력(USD 1억) 등 주요 On-Shore FRN 발행을 주관하였으며, 3건의 Private Samurai Bond 발행 자문을 수행하는 등 다수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dvisory 부문 _ M&A 부문에서는 1,700억 원 규모의 대선주조 매각자문과 1,100억 원 규모의 우리캐피탈 매각자문,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한통운 매각자문, 5,365억 원 규모의 예금보험공사 보유 저축은행 매각자문 등 대형 M&A Deal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대선주조 매각자문은 매각주체 변경, 급격한 영업수익 악화, 매각기간 장기화 등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매각구조 수립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저축은행 매각자문 역시 적절한 패키지 구성을 통해 미매각 물량 없이 6개 저축은행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PE 부문에 있어서도 신성장동력 그린퓨처 PEF(약 1,000억 원 규모)를 통해 녹색성장 및 기타 유망업체들에 대한 투자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PF 부문 _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PF 부실로 인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 어려웠던 영업환경 속에서도 부동산 PF 외에 에너지, 선박, 원자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멕시코 만에 소재한 ANKOR 해상유전펀드의 성공적인 판매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타 부문 간 협업 시너지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발전, 에너지 부문의 PF 부서를 신설하여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히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FY11	FY10	FY09
유상증자	2위	1위	1위
KDB대우증권 인수금액	4,112	15,809	6,881
시장전체 규모	31,829	54,149	61,599
Block Trade	5위	2위	5위
KDB대우증권 매각금액	4,565	11,555	3,005
시장전체 규모	76,185	69,263	31,309
IPO	3위	7위	1위
KDB대우증권 인수금액	5,765	4,347	15,042
시장전체 규모	32,063	86,210	59,273
ABS	2위	1위	1위
KDB대우증권 인수금액	26,704	24,815	35,295
시장전체 규모	247,970	193,411	260,422
회사채	7위	4위	5위
KDB대우증권 인수금액	44,721	39,397	34,053
시장전체 규모	696,667	467,354	442,910

*전자공시시스템 / 당사 집계 기준

대외수상을 통한 IB 역량 입증 |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IB사업부는 대외 수상을 통해 KDB대우증권의 명성과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하는 '2012 대한민국 IB대상 시상식'에서 7개 부실저축은행의 매각 자문과 각종 메가딜의 M&A 자문을 맡아 성공리에 협상을 마무리한 것을 평가 받아 '최우수 M&A부문 주간사'로 선정되었습니다.

Deal 프로세스 개선 | IB사업부는 상품별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인 Executio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CM 부문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실사 시 외부 회계·법무법인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공동 실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에 업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DCM 부문 역시 제도 개선 등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실사 업무규정 제정 등 내부 프로세스 정립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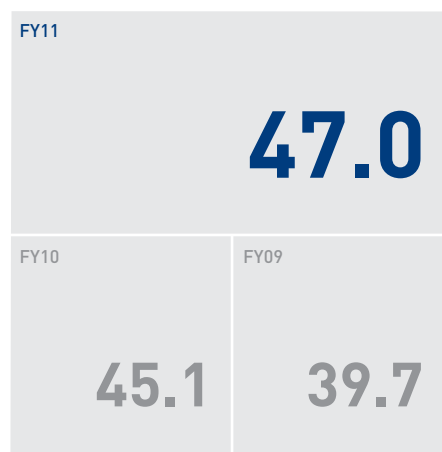
신규 수익원 창출 | 홍콩 등 해외증시 상장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여 해외기관투자자 대상 청약수수료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휴비스 IPO에 청약한 해외기관에 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여 기존 인수수수료 수익 외 추가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청약수수료 수취가 업계 관행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DCM 부문에서는 GS에너지, GS EPS 등 AA급 이상의 우량채 발행에서 대표주관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대표주관 역할을 인정받고, 나아가 회사채 제도개선이 조기 정착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3) 자산관리(WM) 부문

KDB대우증권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제공과 Brokerage와 자산관리 모든 분야에 토털 영업이 가능한 직원의 육성 그리고 PB 영업을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 등 대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WM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1 회계연도 WM 부문 수익은 총 1,008억 원을 기록하였고, 당사 최초 1천억 원을 돌파하며 주요한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WM 잔고는 47조 원으로 전년대비 4% 이상 증대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상품 출시로 수익원 창출 및 개인고객 기반 확대 | 2011년 업계 최초의 자산배분을 통한 월지급식 포트폴리오 상품인 '골든에이지'를 출시하여 2,500억 원에 달하는 판매 성과를 이루었으며, 적립에서 지급까지의 다양한 기능을 패키지화한 새로운 적립식 투자의 Tool인 파워적립식 패키지를 출시하여 평가금액 기준 1,300억 원의 잔고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액 개인고객 유치를 위한 91일물 특관 금리 RP 상품으로 월 1천억 원대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개인자산 순유치를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PB 영업을 위한 고객기반 확대의 노력을 지속하여 2011년 개인자산 순증 4조 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WM 잔고 추이 (단위:조 원)



WM 수익 추이 (단위:억 원)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KDB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 | KDB산업은행에서 발행한 확정금리 상품인 산금채의 2,000억 원 규모의 위탁 판매와, 원금보장 및 월지급식 형태의 10년 만기 장기상품인 KDB안심튼튼펀드로 500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는 등 그룹 내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금채, KDB안심튼튼펀드는 2011 One KDB 시너지 대상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며 그룹 내 시너지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증권업계 최초로 KDB 예금을 편입한 시너지 신상품인 KDB ELD 상품을 출시하여 500억 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KDB금융그룹의 신인도를 바탕으로 KDB대우증권의 운용역량, 상품구조화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PB 영업 지원 시스템 강화 | 은퇴, 부동산, 세무 등 컨설팅 전 분야의 전문가 그룹 확충을 통해 All in One Day, VIP 1:1 컨설팅, 세무 상주 서비스 등의 PB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지원 서비스 및 VIP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여 HNW 고객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프리미엄 PB 증권사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PB 전담 리서치 조직인 Retail투자전략부는 실전 모델 포트폴리오와 적시성 높은 투자정보 제공을 통해 관리 고객의 안정적 수익률 제고와 동시에 단기 시장대응력을 돕는 등 주식시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객관리를 PB 영업의 근본이라 판단하여 종합적인 고객관리 Tool인 SFA(Sales Force Automation)를 구축하여 고객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고객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Retail 커뮤니티를 오픈하여 본·지점 및 지점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영업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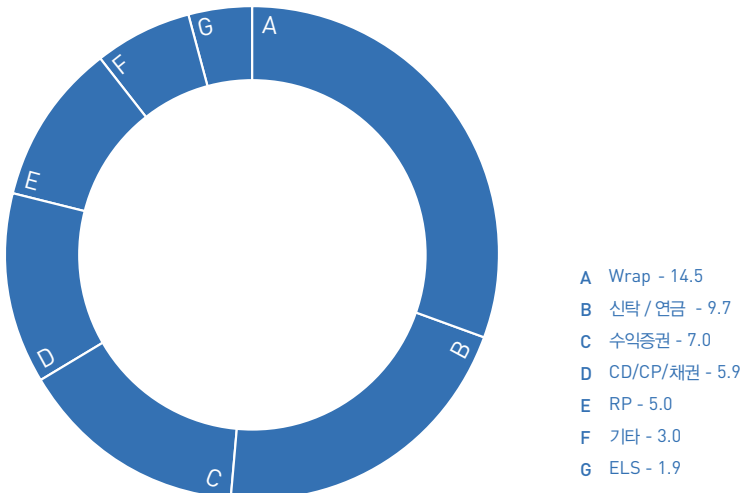
4) SALES & TRADING 부문

2011 회계연도 Sales & Trading 부문(Global Market 부문)은 어려운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2,316억 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여 업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또한 회사 내 손익 기여율도 29%를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일즈 기능 강화 및 신디케이트 기능 확대 | 2011년 12월 업계 최고의 세일즈파워를 자랑하는 금융상품영업본부가 GM 부문으로 편입되며 Sales & Trading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기존의 Product 생산 기능에 기관 대상 세일즈 기능이 강화되면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고객의 니즈를 적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상품공급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신설된 파생신디케이트 기능이 정착됨에 따라 Sales와 Trading 간의 원활한 조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상품의 공급 및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12년에는 부문 간 협력을 공고히 하여 시너지 창출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홍콩 Sales & Trading Platform 구축 | 2011년은 아시아 중심의 해외진출 전략 추진을 위해 홍콩에 Global

WM 잔고 구성 (단위:조 원)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제공과
 대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2011 회계연도 WM 부문 수익이
 당사 최초 1천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Trading Center를 구축한 뜻 깊은 해입니다. 약 2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통해 전문인력 채용, 선진 Trading 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셋업작업을 2011년 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증자자금을 기반으로 외화채권 포지션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해외채권 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 Sales & Trading 수익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IB로 발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채권 부문 _ 채권 Dealing 및 중개, RP 운용·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채권 부문은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정확한 시장 예측과 적극적인 해외 운용수익 극대화 전략을 통해 업계 최고의 수익 및 운용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성공적인 해외채권 Desk 구축으로 채권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익창출 능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외화채권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자산운용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전체 수익 중 외화채권 운용 수익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에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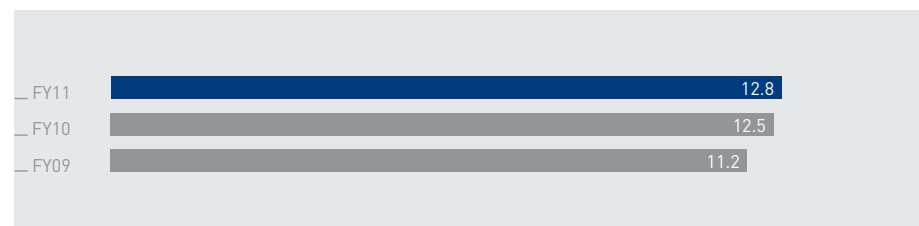
파생 부문 _ 파생 상품의 공급, 헤지 운용, Sales를 담당하고 있는 파생 부문은 업계 최고의 운용 역량과 차별화된 신상품, 독보적인 Sales 역량을 바탕으로 ELS 발행금액 5년 연속 1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KDB 대우증권만의 강점인 파생신디케이트 Desk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신상품의 자체 개발 및 다양한 해외 구조화 상품의 발행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DLS 시장에서 금리, 외환, 신용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DLS 상품 발행으로 증권업계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유자산 부문 _ KDB대우증권 고유자산 부문은 PI(Principal Investment) 부문과 주식·선물·옵션 운용 등의 Prop.Trading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I 부문은 Global Macro, 해외 IPO 등 투자수단의 다변화 및 신규 비즈니스 추진으로 수익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Prop.Trading 부문은 2007년부터 헤지펀드 전략에 따른 조직 구성을 통해 다양한 헤지운용 전략을 구사하며 탁월한 Track Record를 축적해 왔으며, 2011년에도 어려운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인평가기관인 모닝스타로부터 Track Record 인증을 받았으며 헤지펀드 운용역의 공급처 역할을 하는 등 회사가 추진 중인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이자손익

2011 회계연도 이자손익은 전기대비 722억 원 감소한 503억 원(채권 포지션에 대한 이자손익 불포함)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예탁금 관련 이자손익이 77억 원 증가한 반면 대출금 이자와 기타이자손익이 각각 68억 원, 27억 원 감소하였고, 특히 2010 회계연도에 반영되었던 대우캐피탈 CRV 배당금 453억 원과 연결대상 수익증권의 배당금 235억 원 등 688억 원의 1회성 요인의 소멸로 배당금 손익이 704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운용잔고 추이 (단위:AUM,조 원)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6) 판매관리비

2011 회계연도 판매관리비는 전년대비 1,011억 원이 감소한 5,62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0 회계연도에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인한 166억 원의 일시적 퇴직급여의 증가 요인이 해소되었고, 실적에 연동한 변동성 인건비가 전년대비 40%인 448억 원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광고선전비가 전년대비 123억 원 감소하였고 증권거래세, 교육세의 감소 등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전년대비 4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4.재무 현황

KDB대우증권의 2011 회계연도 총자산 규모는 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22조 4,634억 원으로 전년의 19조 4,119억 원에 비해 15.7%인 3조 5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가로 현금 및 예치금이 2조 1,917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유 유가증권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4조 7,933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원화채권과 외화채권이 전년대비 각각 2,467억 원과 7,787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대출채권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1조 4,851억 원으로 PF 대출에서 4,353억 원이 감소한 반면 신용공여금은 9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 규모는 18조 4,904억 원으로 전년 16조 6,804억 원에 비해 10.9%인 1조 8,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DLS, ELS 발행 증가로 인한 파생결합증권이 2조 7,999억 원 증가한 반면 은행차입금 상환 및 고객 RP 매도 감소로 차입부채는 4,98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위탁자 예수금 및 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 투자자 예수금은 전년 2조 897억 원에서 1조 7,401억 원으로 3,496억 원 감소하였으며, 미지급금 감소로 인해 기타부채는 1,38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 3월 말 현재 자기자본은 3조 9,730억 원으로 전년 2조 7,315억 원에 비해 45.5%인 1조 2,4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11월에 1조 1,242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 납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KDB대우증권의 자본금은 전년대비 6,830억 원이 증가한 1조 7,039억 원입니다. 2012년 3월 말 기준 총 발행 보통주 주식수는 유상증자 신주 1억 3,660만 주를 포함 3억 2,670만 891주이며, 우선주는 1,407만 5,750주입니다.

구분		FY11(제43기)	FY10(제42기)	FY09(제41기)
인건비	급여	1,715	1,736	1,484
	퇴직급여	408	618	297
	복리후생비	1,293	1,793	2,031
	합계	3,416	4,148	3,812
전산운영비		213	235	202
임차료		194	266	171
지급수수료		96	103	75
접대비		77	76	77
광고선전비		278	402	378
감가상각비		234	234	231
조사연구비		13	36	12
연수비		61	35	32
무형자산상각비		98	83	102
세금과 공과금		317	362	310
기타		635	660	536
합계		5,629	6,640	5,938

구분		FY11(제43기)	FY10(제42기)	FY09(제41기)
인건비	고정성	2,743	3,026	2,324
	변동성	673	1,121	1,488
합계		3,416	4,148	3,812

구분	제43기 (2012.3.31)	제42기 (2011.3.31)	제41기 (2010.3.31)
현금 및 예치금	32,715	10,798	35,991
유가증권	147,933	138,534	115,467
파생상품	3,029	2,095	2,217
대출채권	14,851	18,484	10,176
유형자산	2,578	2,655	4,243
기타자산	23,528	21,553	6,944
자산총계	224,634	194,119	175,038
예수부채	17,401	20,897	25,204
차입부채	150,224	127,245	113,297
기타부채	17,279	18,662	7,977
부채총계	184,904	166,804	146,478
자본금	17,039	10,209	10,209
자본잉여금	6,610	2,248	2,228
자본조정	-1,307	-1,339	-33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44	1,148	1,679
이익잉여금	16,044	15,049	14,774
자본총계	39,730	27,315	28,560
부채와자본총계	224,634	194,119	175,038

· 제43기, 제42기 K-IFRS 연결기준 / 제41기 K-GAAP 개별기준

5. 영업용순자본비율(NCR)

KDB대우증권은 회사의 적절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산정 기준일 현재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영업용순자본이란 자기자본에서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인 순재산액에서 고정자산 등의 차감항목과 대손충당금 등의 가산항목을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총위험액은 금융시장 악화 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계량화한 것으로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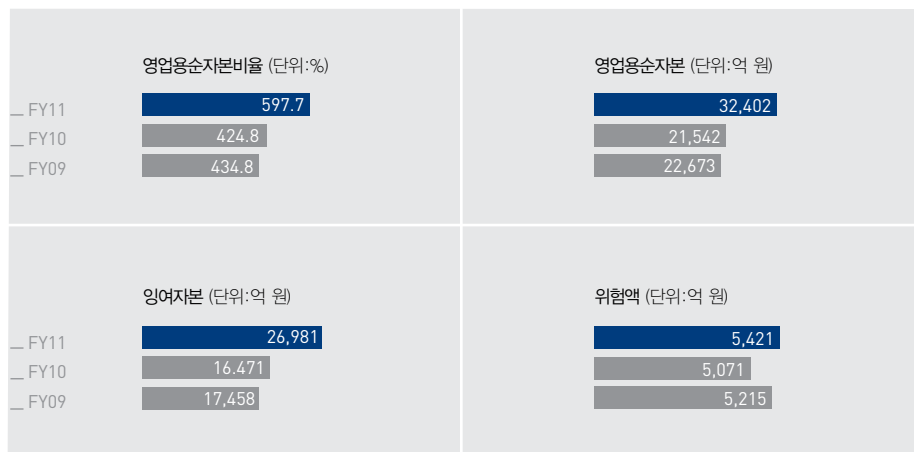
2012년 3월말 기준 KDB대우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597.7%로(영업용순자본 3조 2,402억 원/총위험액 5,421억 원),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최저 영업용순자본비율 수준인 150%, 자본시장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신규 매매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20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에 따라 ELS/ELW 신규 상장 및 유동성공급(LP) 업무 수행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30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위험부담여력을 보여주는 잉여자본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되며, 2012년 3월말 기준 잉여자본은 2조 6,981억 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 기본 원칙 | 리스크란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실 가능성을 관리하는 리스크관리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다면 수익창출의 기회도 사라지는 반면, 과도한 리스크 노출은 주주 이익과 회사가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최고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리스크 수준에서 최적의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주주 이익 극대화 및 지속가능기업으로서의 회사 가치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상 리스크를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법률리스크, 평판리스크로 세분화하고, 리스크별 특성에 적합한 관리제도 및 기준을 마련하여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인식·분석·평가·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고의 인력유지와 예산투입을 통하여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순이익을 이루어 왔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추이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리스크관리체제 | KDB대우증권은 전사적이고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각종 규정·지침·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의 효과적 관리와 회사가 보유한 투자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자산의 건전성 및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리스크관리 최고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의 세부내용 및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고유재산리스크관리협의회 및 신탁재산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리스크관리지침, 신용리스크관리지침,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 운영리스크관리지침, 해외거점리스크관리지침, 신탁재산리스크관리지침 등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자산운용 형태 및 노출 리스크 종류별로 효율적 리스크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지침·기준 외에 투자 및 신용공여 업무의 안정성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규정'을 제정하여 자기자본투자, 인수 및 신용공여 관련업무와 모니터링, 추심, 부실채권관리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투자심의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자기자본투자 등 관련 업무의 심의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투자관리지침, 인수업무심사지침, 부실채권관리지침, 부동산PF 리스크관리기준 등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심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조직 | KDB대우증권의 리스크관리 조직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고유재산리스크관리협의회의 회(이하 '고유재산협의회'), 신탁재산리스크관리협의회의 회(이하 '신탁재산협의회'), 투자심의위원회(이하 '투심위'), 리스크관리 전담임원(CRO: Chief Risk Officer), 리스크관리부, 심사부, 리스크관리자(사업부별), 리스크보고자(부서별), 운영리스크관리자(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이사회 구성원 중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리스크관리 관련 최고의 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경영전략과 부합되는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관리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주요 사안은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재무건전성비율의 적정수준 설정(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Risk Appetite 결정),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기준 및 비상계획의 승인, 중요한 리스크관리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회사의 총 리스크 한도 설정, 거액의 신용공여,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주요 변경 및 개선의 승인 등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련 거래 또는 신탁재산운용의 중단, 포지션의 조정, 관련 부서에 대한 적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유재산협의회'와 '신탁재산협의회'는 위원회 결의사항의 세부내용 및 위임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리스크관리체제

규정 및 제도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측정방법론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	표준모형 VaR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고유재산리스크관리협의회	내부모형 VaR
시장리스크관리지침	신탁재산리스크관리협의회	노출금액(Exposure)
신용리스크관리지침	투자심의위원회	민감도(Sensitivity)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	리스크관리 전담임원	시뮬레이션(Simulation)
운영리스크관리지침	리스크관리부	유동성 Gap
해외거점리스크관리지침	심사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신탁재산리스크관리지침	리스크관리자	
심사규정	리스크보고자	
자기자본투자관리지침	운영리스크관리자	
인수업무심사지침		
부실채권관리지침		
부동산PF 리스크관리기준		

최고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주 이익 극대화와
지속가능기업으로서의
회사가치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유재산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신규 형태의 거래 개시 또는 신상품 도입의 승인, 가격평가모형 사용 및 변경의 승인, 정책포지션 편입에 관한 사항의 승인, 거래담당부서에 대한 위험조정 성과평가 기준의 승인, 위원회가 승인 한 한도 범위내의 부서별, 영업활동별 한도 배분, 배분된 한도를 초과시키는 리스크 부담행위에 대한 승인,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 변경의 승인 등입니다. 고유재산협의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리스크관리 전담임원(CRO:Chief Risk Officer)으로 하며, 위원장은 고유재산협의회에서 처리한 사항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거래담당부서에 거래의 중단, 포지션의 조정, 거래담당자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신규 형태의 신탁 개시 또는 신상품 도입의 승인, 고유재산으로의 취득 대상 신탁 재산 분류 승인,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채권가격정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신탁재산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초과 승인 등입니다. 신탁재산협의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신탁담당 집행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신탁재산협의회에서 처리한 사항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탁담당부서에 신탁 재산운용의 중단, 포지션의 조정, 신탁담당자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심위’는 회사의 투자 관련 거래에 대한 심의기구로, 회사의 집행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투심위의 주요 업무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투자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의 자산취득행위에 대한 심의, 인수 및 신용공여업무에 대한 심의, 금융투자 건에 대한 부실채권지정 및 포지션 이관, 대체가격의 심의 등입니다.

‘리스크관리 전담임원(CRO)’은 고유재산협의회와 투심위의 위원장으로서 고유재산협의회 및 투심위 회의를 주재하고 리스크관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한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부는 종합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및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통하여 회사의 자기자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기업의 토대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부는 ‘위원회’ 또는 ‘고유재산협의회’가 수립한 리스크관리 정책을 적절한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 실행하고 ‘위원회’ 또는 ‘고유재산협의회’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운용현황 모니터링 및 리스크관리 전반에 대한 경영진 보고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심사부는 회사의 자기자본투자, IB인수영업, 신용공여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심사의견을 제공하고, 거래집행 이후에는 원활한 회수를 위한 단계별 사후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부는 영업부서와 독립적으로 회사의 투자 관련 거래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행하고, 투자심의회위원회 운영 실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기존 투자포지션에 대한 모니터링, 추심 및 무수익자산(NPL: Non Performance Loan) 관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리스크관리자는 거래담당부서를 관할하는 사업부 소속 직원으로서 거래담당자와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당해 사업

리스크관리 조직 현황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부의 운용포지션 내용, 거래손익 등 관련된 제반위험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리스크관리부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보고자는 거래담당부서별 1명씩 선정되어 당해 거래담당부서의 거래내용 및 포지션 현황 등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당해 거래담당부서장과 리스크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리스크관리부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관리자는 회사 부점별 1명씩 선정되어 리스크통제자가평가(RCSA; Risk & Control Self Assessment), 핵심리스크지표(KRI; Key Risk Indicator) 데이터 입력, 손실사건 등록 등 해당 부점의 운영리스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주요 현황

시장리스크(Market Risk) _ 시장리스크란 주가·금리·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자산 운용상의 손실가능성을 말합니다. KDB대우증권은 시장리스크 측정 및 관리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표준 방법에 의한 VaR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에서 산출되는 내부모형 시장VaR를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VaR (Value at Risk)란 '정상적인 시장에서, 일정한 보유기간 동안 주어진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범위 내에서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보유포지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액'으로 정의됩니다.

VaR는 유용한 시장리스크 측정방법이지만 정상적인 시장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신뢰수준을 초과하는 사건이 발생 시 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VaR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KDB대우증권은 민감도(Sensitivity) 모니터링, 위기상황분석(Stress-Testing)을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시장리스크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결과를 정기적(일간·주간·월간 단위)으로 작성하여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내용에는 시장VaR 이외에 손실한도 모니터링 현황, 회사의 주요 자산운용 현황, 위기 상황분석 결과, 재무건전성 측정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Credit Risk) _ 신용리스크란 거래상대방이 결제의무 또는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스왑 등의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계약 종료일 전에 계약을 중단함으로써 회사가 입게 되는 자산운용상의 손실가능성을 말합니다. KDB대우증권은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거래상대방별 또는 신용등급별 익스포저(Exposure)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표준모형에 의한 신용VaR한도관리를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리스크 측정 및 관리를 위하여 내부모형 신용VaR를 산출할 수 있는 (新)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리스크 현황에 대한 정기적(주간·월간 단위) 모니터링을 통하여 익스포저가 과대한 주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를 부담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이 크며 유동화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적 리스크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신용리스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KDB대우증권은 신용리스크를 부담하는 거래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방법과 정성적 분석방법을 고려한 사전 심사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_ 유동성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또는 운용자산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통상 매매할 수 있는 시장가격으로 자산을 취득·처분할 수 없게 됨으로써 회사가 입게 되는 자산운용상의 손실가능성(Market Liquidity Risk)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 유동성비율 등과 같은 최소한의 유동성 유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가능성(Prudential Liquidity Risk)입니다. KDB대우증권은 유동성리스크 측정을 위해 유동성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동성갭(Gap)과 유동성비율을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유동성리스크 현황에 대해 정기적(주간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으며, 자금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회사의 유동성 현황을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통상적인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관리와 함께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은 회사의 유동성 상태 및 금융시장 안정성에 따라 주의, 경계, 위험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리스크별 특성에 적합한
관리제도 및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업계 최고의 인력유지와
예산투입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성 모니터링을 위한 운용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_ 운영리스크란 적절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내부프로세스, 인력, 시스템 및 외부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가능성을 말합니다. KDB대우증권은 Value Chain 분석을 통해 전사 업무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운영리스크의 정교한 관리뿐만 아니라 전사 프로세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실사건 관리, 리스크통제 자가평가(Risk & Control Self Assessment), 핵심리스크지표(Key Risk Indicator) 관리, 리스크 측정을 위한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과거 손실사건을 수집하고, 발생원인 및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동일 사건의 반복적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발생 가능한 운영리스크를 선정하여 리스크별 발생원인, 사건유형, 대응방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 통제 자가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 중이며, 핵심리스크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운영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표준모형과 내부모형(고급측정법 적용)을 통해 운영 VaR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리스크(Legal Risk) _ 법률리스크란 법해석 또는 계약서상의 오류, 법령 및 기타 규제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 가능성을 말합니다. KDB대우증권은 법률리스크를 운영리스크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Statements

외부인의 감사보고서 _ 연결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외부인의 감사보고서 _ 별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검토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_ 연결

KDB대우증권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KDB대우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2012년 3월 31일과 2011년 3월 31일 및 2010년 4월 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2012년 3월 31일과 201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본 감사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연결재무제표는 KDB대우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2012년 3월 31일과 2011년 3월 31일 및 2010년 4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2012년 3월 31일과 201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14일

권 승 화 

대표이사 권 승 화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태영빌딩 3-8F, 150-777 | Tel +82-2-3787-6600 | Fax +82-2-783-5890 | www.ey.com/kr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KDB대우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

제43기 2012년 3월 31일 현재

제42기 2011년 3월 31일 현재

제42기(기초) 2010년 4월 1일 현재

KDB대우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백만 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자산			
I. 현금및예치금	3,271,463	1,079,824	748,259
II. 단기매매금융자산	7,863,002	7,160,848	8,411,519
III.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1,972,663	1,943,410	2,705,487
IV. 파생상품자산	302,892	209,509	233,728
V. 매도가능금융자산	4,934,416	4,723,593	3,197,198
VI. 대출채권	1,485,061	1,848,403	1,238,610
VII. 관계기업투자	23,212	25,549	41,813
VIII. 유형자산	257,757	265,495	258,834
IX. 투자부동산	103,750	102,880	106,660
X. 무형자산	78,057	77,659	74,182
XI. 당기법인세자산	11,968	3,159	2,943
XII. 이연법인세자산	64,584	65,989	5,441
XIII. 기타자산	2,094,569	1,905,549	1,486,514
자산 총계	22,463,394	19,411,867	18,511,188
부채			
I. 단기매매금융부채	370,313	397,905	216,130
II.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6,272,422	3,472,495	3,422,596
III. 파생상품부채	277,563	171,187	172,408
IV. 예수부채	1,740,118	2,089,705	2,520,258
V. 차입부채	7,226,631	7,724,864	7,397,351
VI. 사채	875,515	958,092	359,053
VII. 퇴직급여부채	186,265	165,461	136,854
VIII. 총당부채	18,293	33,800	27,740
IX. 당기법인세부채	1,938	10,730	177,614
X. 이연법인세부채	54	-	-
XI. 기타부채	1,521,340	1,656,167	1,339,425
부채 총계	18,490,452	16,680,406	15,769,429
자본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972,942	2,731,461	2,741,759
1. 자본금	1,703,883	1,020,883	1,020,883
2. 자본잉여금	660,954	224,833	222,752
3. 자본조정	[130,705]	[133,893]	[32,97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4,401	114,785	151,065
5.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적립예정금액 당기말: 16,864 백만 원 전기말: 386 백만 원	1,604,409	1,504,853	1,380,029
II. 비지배지분	-	-	-
자본 총계	3,972,942	2,731,461	2,741,759
부채 및 자본 총계	22,463,394	19,411,867	18,511,188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43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제42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KDB대우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백만 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I. 영업수익		3,024,277		3,573,452
1. 수수료수익	517,231		578,102	
2.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이익	266,633		339,878	
3. 단기매매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이익	37,433		1,600	
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이익	89,665		107,529	
5.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이익	263,412		541,302	
6. 파생상품거래 및 평가이익	1,039,793		1,201,281	
7.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41,744		65,514	
8. 이자수익	654,020		603,295	
9. 기타의영업수익	114,346		134,951	
II. 영업비용		2,812,852		3,274,048
1. 수수료비용	47,274		53,767	
2.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손실	227,239		259,397	
3. 단기매매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손실	42,071		7,258	
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손실	14,177		45,617	
5.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손실	418,861		752,159	
6. 파생상품거래 및 평가손실	919,252		1,016,651	
7.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및 손상차손	47,267		79,457	
8. 이자비용	449,300		349,264	
9. 판매비외관리비	562,898		663,966	
10. 기타의영업비용	84,513		46,512	
III. 영업이익		211,425		299,404
IV. 영업외수익	27,016		39,747	
V. 영업외비용	16,080		23,296	
V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22,361		315,855
VII. 법인세비용		55,444		89,926
VIII.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적립후 조정이익 당기:150,053 백만 원		166,917		225,929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순이익		166,917		225,929
2. 비지배지분 순이익		-		-
IX. 기타포괄손익		19,616		(36,280)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2,923		(41,500)	
2. 지분법자본변동	[292]		838	
3.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2,649		(2,366)	
4. 해외사업장외화환산손익	5,080		(4,180)	
5. 포괄손익에대한법인세효과	(10,744)		10,928	
X. 총포괄이익		186,533		189,649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총포괄이익		186,533		189,649
2.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
XI.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단위: 원)		632		1,044

연결자본변동표

제43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제42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KDB대우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백만 원)

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합계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2011.4.1(당기초)	1,020,883	224,833	(133,893)	114,785	1,504,853	2,731,461	-	2,731,461
연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66,917	166,917	-	166,917
기타포괄손익변동	-	-	-	19,616	-	19,616	-	19,616
소계	-	-	-	19,616	166,917	186,533	-	186,533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	683,000	437,235	-	-	-	1,120,235	-	1,120,235
현금배당	-	-	-	-	(79,517)	(79,517)	-	(79,517)
자기주식의 처분	-	219	3,188	-	-	3,407	-	3,407
기타	-	(1,333)	-	-	12,156	10,823	-	10,823
소계	683,000	436,121	3,188	-	(67,361)	1,054,948	-	1,054,948
2012.3.31(당기말)	1,703,883	660,954	(130,705)	134,401	1,604,409	3,972,942	-	3,972,942

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합계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2010.4.1(전기초)	1,020,883	222,752	(32,970)	151,065	1,380,029	2,741,759	-	2,741,759
연결총포괄손익:								
전기순이익	-	-	-	-	225,929	225,929	-	225,929
기타포괄손익변동	-	-	-	(36,280)	-	(36,280)	-	(36,280)
소계	-	-	-	(36,280)	225,929	189,649	-	189,649
소유주와의 거래 등:								
현금배당	-	-	-	-	(101,804)	(101,804)	-	(101,804)
자기주식의 취득	-	-	(103,998)	-	-	(103,998)	-	(103,998)
자기주식의 처분	-	708	3,075	-	-	3,783	-	3,783
기타	-	1,373	-	-	699	2,072	-	2,072
소계	-	2,081	(100,923)	-	(101,105)	(199,947)	-	(199,947)
2011.3.31(전기말)	1,020,883	224,833	(133,893)	114,785	1,504,853	2,731,461	-	2,731,461

연결현금흐름표

제43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제42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KDB대우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백만 원)

과목	당기	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2,162	872,439
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22,361	315,855
2. 비현금항목 조정	(221,729)	(245,299)
이자수익	(654,020)	(603,295)
이자비용	449,300	349,265
배당금수익	(15,936)	(86,329)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익	(10,054)	(9,743)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평가손익	(78,229)	(63,554)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35,213)	(48,012)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40,736	61,955
지분법평가손익	2,194	(6,175)
관계기업투자처분손익	-	3,937
대손충당금전(환)입액	3,202	(3,807)
유형자산처분손익	670	578
감가상각비	23,394	23,380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1,886	1,865
무형자산처분손익	330	-
무형자산상각비	9,756	8,310
무형자산손상차손	1,858	-
기타자산대손상각비	1,340	(5,089)
단기매매금융부채평가손익	5,869	5,658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평가손익	69,142	112,475
파생상품평가손익	(62,376)	(55,185)
퇴직급여	40,767	61,835
충당부채전(환)입액	(4,424)	6,060
외회환산손익	(11,921)	572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47,115)	774,328
예치금	(1,853,103)	(339,284)
단기매매금융자산	(692,098)	1,260,41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48,977	825,631
대출채권	360,140	(612,297)
파생상품자산	224,257	188,228
기타자산	(184,096)	(422,755)
단기매매금융부채	(32,230)	176,116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2,730,785	(62,576)
예수부채	(349,587)	(430,553)
파생상품부채	(146,237)	(112,412)
퇴직급여부채	(9,281)	(17,703)
충당부채	(11,083)	-
기타부채	(133,559)	321,519

KDB대우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백만 원)

과목	당기		전기	
4. 이자수취액	620,199		603,647	
5. 이자지급액	(442,577)		(355,553)	
6. 배당금 수취액	16,117		89,587	
7. 법인세 지급액	(65,094)		(310,12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4,883)		(1,603,461)
1. 유형자산의 처분	-		15	
2. 무형자산의 처분	3,421		-	
3.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25,051	
4.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50]		[6,791]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194,757)		(1,581,839)	
6. 유형자산의 취득	(19,609)		(28,763)	
7. 무형자산의 취득	(13,876)		(11,811)	
8. 보증금의 감소	10,088		677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59,335		723,876
1. 차입부채의 증가(감소)	(498,233)		327,512	
2. 사채의 증가(감소)	(83,442)		600,000	
3. 자기주식의 취득	-		[103,998]	
4. 자기주식의 처분	3,407		3,783	
5. 유상증자	1,120,235		-	
6. 임대보증금의 감소	(3,115)		[1,617]	
7. 배당금의 지급	(79,517)		(101,804)	
IV.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51		[57]
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II+III+IV)		326,865		(7,203)
VI.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0,834		108,037
VII.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427,699		100,834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_ 별도

KDB대우증권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KDB대우증권주식회사의 2012년 3월 31일과 2011년 3월 31일 및 2010년 4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2년 3월 31일과 201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본 감사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KDB대우증권주식회사의 2012년 3월 31일과 2011년 3월 31일 및 2010년 4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2012년 3월 31일과 201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14일

權 勝 和 

대표이사 권 승 화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태영빌딩 3-8F, 150-777 | Tel +82-2-3787-6600 | Fax +82-2-783-5890 | www.ey.com/kr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KDB대우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제43기 2012년 3월 31일 현재

제42기 2011년 3월 31일 현재

제42기(기초) 2010년 4월 1일 현재

KDB대우증권주식회사 (단위:백만 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자산			
I. 현금및예치금	3,206,562	1,051,346	713,812
II. 단기매매금융자산	7,611,754	7,133,600	8,354,705
III.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1,972,663	1,943,410	2,705,487
IV. 파생상품자산	302,829	209,563	233,882
V. 매도가능금융자산	4,715,663	4,568,844	3,151,627
VI. 대출채권	1,485,057	1,679,820	997,832
VII.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380,375	233,854	214,035
VIII. 유형자산	255,741	264,277	258,458
IX. 투자부동산	103,750	102,880	106,660
X. 무형자산	78,026	77,248	73,721
XI. 당기법인세자산	10,138	-	-
XII. 이연법인세자산	65,052	62,717	3,765
XIII. 기타자산	2,045,538	1,879,000	1,436,434
자산 총계	22,233,148	19,206,559	18,250,418
부채			
I. 단기매매금융부채	370,313	397,905	216,130
II.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6,272,422	3,505,597	3,456,605
III. 파생상품부채	276,263	168,752	169,351
IV. 예수부채	1,740,975	2,090,651	2,520,427
V. 차입부채	7,061,605	7,511,007	7,142,252
VI. 사채	875,514	958,042	359,002
VII. 퇴직급여부채	186,265	165,461	136,854
VIII. 총당부채	18,293	33,800	27,740
IX. 당기법인세부채	-	10,730	177,614
X. 기타부채			
부채 총계	18,272,007	16,464,766	15,496,389
자본			
I. 자본금	1,703,883	1,020,883	1,020,883
II. 자본잉여금	660,954	223,500	222,792
III. 자본조정	(130,705)	(133,893)	(32,97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5,060	131,405	154,948
V. 이익잉여금	1,591,949	1,499,898	1,388,376
대손준비금 적립예정금액			
당기말:16,864 백만 원 전기말:386 백만 원			
자본 총계	3,961,141	2,741,793	2,754,029
부채 및 자본 총계	22,233,148	19,206,559	18,250,418

포괄손익계산서

제43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제42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KDB대우증권주식회사 (단위:백만 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I. 영업수익		3,006,191		3,533,295
1. 수수료수익	515,558		572,347	
2.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이익	260,198		327,740	
3. 단기매매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이익	37,433		1,629	
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이익	89,665		107,529	
5.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이익	263,412		542,209	
6. 파생상품거래 및 평가이익	1,039,166		1,201,449	
7.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38,566		78,362	
8. 이자수익	641,675		584,169	
9. 기타의영업수익	120,518		117,861	
II. 영업비용		2,792,362		3,238,387
1. 수수료비용	56,397		63,890	
2.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손실	223,021		270,748	
3. 단기매매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손실	42,070		7,288	
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손실	14,177		45,617	
5.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손실	418,861		752,159	
6. 파생상품거래 및 평가손실	915,476		1,014,546	
7.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및 손상차손	46,945		62,582	
8. 이자비용	447,205		341,669	
9. 판매비외관리비	545,438		647,484	
10. 기타의영업비용	82,772		32,404	
III. 영업이익		213,829		294,908
IV. 영업외수익	24,060		22,897	
V. 영업외비용	14,701		17,278	
V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23,188		300,527
VII. 법인세비용		51,620		87,201
VIII.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적립후 조정이익 당기: 155,090 백만 원		171,568		213,326
IX. 기타포괄손익		3,655		[23,543]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9,711		[30,182]	
2. 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6,056]		6,639	
X. 당기총포괄이익		175,223		189,783
XI.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단위: 원)		649		986

자본변동표

제43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제42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KDB대우증권주식회사 (단위:백만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11.4.1(당기초)	1,020,883	223,500	(133,893)	131,405	1,499,898	2,741,793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171,568	171,56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3,655	-	3,655
소계	-	-	-	3,655	171,568	175,223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	683,000	437,235	-	-	-	1,120,235
현금배당	-	-	-	-	(79,517)	(79,517)
자기주식의 처분	-	219	3,188	-	-	3,407
소계	683,000	437,454	3,188	-	(79,517)	1,044,125
2012.3.31(당기말)	1,703,883	660,954	(130,705)	135,060	1,591,949	3,961,141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10.4.1(전기초)	1,020,883	222,792	(32,970)	154,948	1,388,376	2,754,029
총포괄이익:						
전기순이익	-	-	-	-	213,326	213,32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23,543)	-	(23,543)
소계	-	-	-	(23,543)	213,326	189,783
소유주와의 거래 등:						
현금배당	-	-	-	-	(101,804)	(101,804)
자기주식의 취득	-	-	(103,998)	-	-	(103,998)
자기주식의 처분	-	708	3,075	-	-	3,783
소계	-	708	(100,923)	-	(101,804)	(202,019)
2011.3.31(전기말)	1,020,883	223,500	(133,893)	131,405	1,499,898	2,741,793

현금흐름표

제43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제42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KDB대우증권주식회사 (단위:백만 원)

과목	당기	전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6,087	714,419
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23,188	300,527
2. 비현금항목 조정	(201,823)	(229,862)
이자수익	(641,675)	(584,169)
이자비용	447,205	341,669
배당금수익	(15,160)	(60,505)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익	(10,807)	(2,74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평가손익	(78,229)	(63,554)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32,357)	(77,327)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40,736	61,547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익	-	(3,925)
대손충당금전(환)입액	3,202	(3,087)
유형자산처분손익	669	574
감가상각비	22,942	23,083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1,886	1,866
무형자산처분손익	330	-
무형자산상각비	9,732	8,285
무형자산손상차손	1,858	-
기타자산대손상각비	456	(5,089)
단기매매금융부채평가손익	5,869	5,65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평가손익	69,142	111,568
파생상품평가손익	(63,965)	(51,569)
퇴직급여	40,767	61,801
총당부채전(환)입액	(4,424)	6,060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29,070)	657,282
예치금	(1,865,134)	(344,116)
단기매매금융자산	(467,347)	1,223,85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48,977	825,631
대출채권	191,561	(672,125)
파생상품자산	222,459	191,931
기타자산	(155,882)	(465,791)
단기매매금융부채	(33,461)	176,116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2,697,683	(62,576)
예수부채	(349,676)	(429,777)
파생상품부채	(144,249)	(116,641)
퇴직급여부채	(8,728)	(15,384)
총당부채	(11,083)	-
기타부채	(154,190)	346,162
4. 이자수취액	607,629	585,908
5. 이자지급액	(438,300)	(356,801)
6. 배당금수취액	15,342	63,762
7. 법인세지급액	(80,879)	(306,397)

KDB대우증권주식회사 (단위:백만 원)

과목	당기	전기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4,221)	(1,486,120)
1. 유형자산의 처분	-	20
2. 무형자산의 처분	3,060	-
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54,416)	(57,229)
4.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처분	7,895	41,335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145,488)	(1,431,619)
6. 유형자산의 취득	(18,413)	(27,582)
7. 무형자산의 취득	(17,420)	(11,812)
8. 보증금의 감소	10,561	767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08,216	765,120
1. 차입부채의 증가(감소)	(449,402)	368,756
2. 사채의 증가(감소)	(83,392)	600,000
3. 유상증자	1,120,235	-
4. 자기주식의 취득	-	(103,998)
5. 자기주식의 처분	3,407	3,783
6. 임대보증금의 감소	(3,115)	(1,617)
7. 배당금의 지급	(79,517)	(101,804)
I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37	(222)
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I+II+III+IV)	290,319	(6,803)
VI.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72,803	79,606
VII.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363,122	72,80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43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제42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12년 6월 29일 | 처분확정일 2011년 6월 1일

KDB대우증권주식회사 (단위:백만 원)

과목	당기	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541,203	1,457,10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369,635	1,332,844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변경 효과	-	(89,067)
3. 당기순이익	171,568	213,326
II. 이익잉여금처분액	75,919	87,468
1. 이익준비금	5,368	7,951
2. 대손준비금	16,864	-
3. 배당금	53,687	79,517
가. 현금배당	53,687	79,517
주당배당금(율):		
보통주 - 당기: 160원(3.2%)		
전기: 400원(8.0%)		
우선주 - 당기: 176원(3.5%)		
전기: 440원(8.8%)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65,284	1,369,635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KDB대우증권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첨부된 KDB대우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12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2년 3월 31일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12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2년 3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14일

權勝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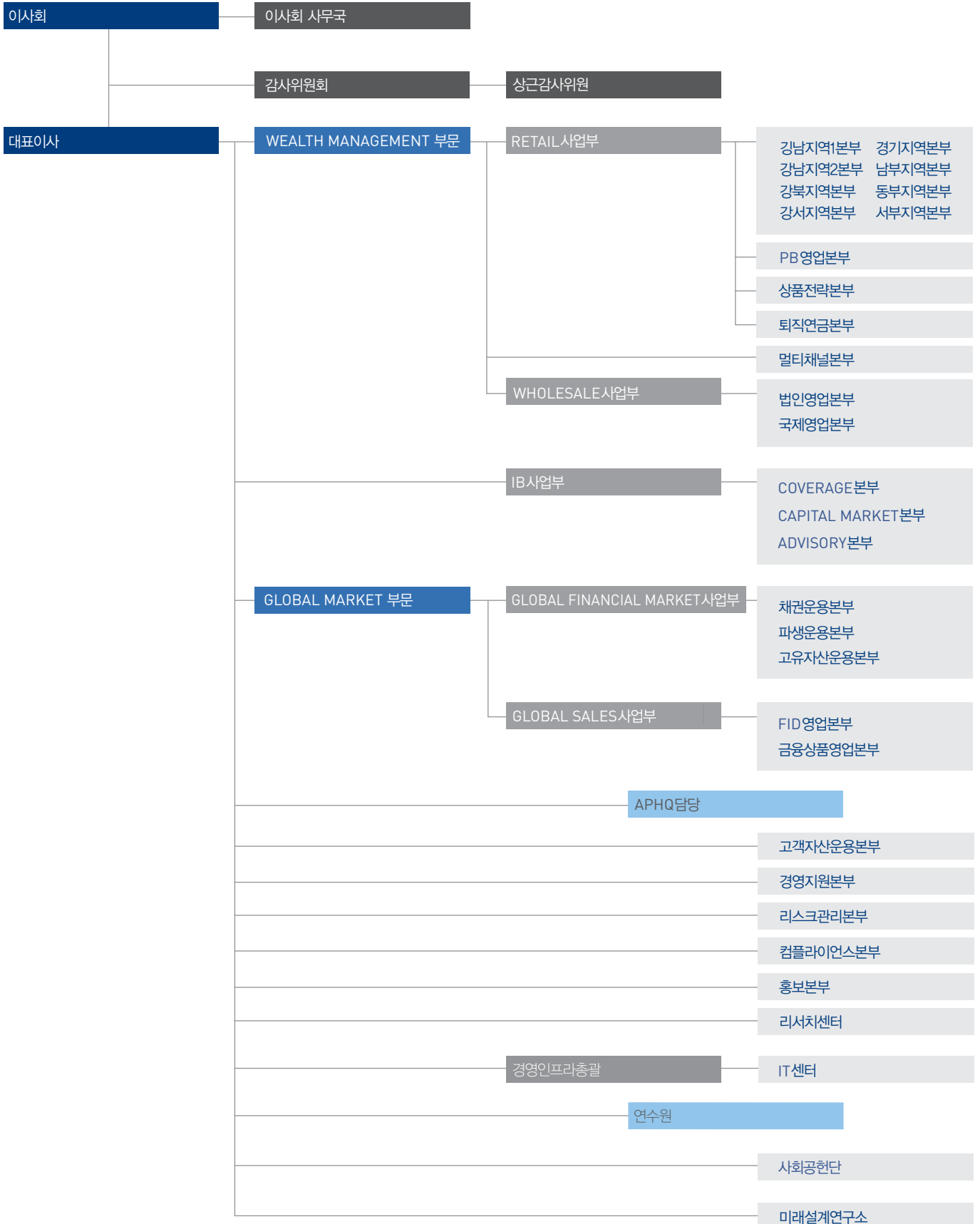
대표이사 권 승 화



연혁

2012	03-14	미국 Mercury Capital Advisors와 업무협약 체결
	02-23	영국 Marshall Wace와 업무협약 체결
	02-10	국내 증권사 최초 홍콩에 'Global Trading Center' 오픈
2011	12-28	터키 이쉬인베스트먼트 사와 전략적 제휴 체결
	12-06	홍콩현지법인인 1억 달러 증자
	11-07	AA+로 신용등급 상승
	11-03	유상증자 납입일
	08-30	동경지점 개소식(동경사무소 지점 승격)
	08-12	한우성해투자자문 북경유한공사 설립
	01-17	무디스 신용등급 최초 획득(Baa2)
	2010	12-08
12-01		KDB금융그룹 통합 CI 선포
10-15		대우증권 창립 40주년 사사(社史) 발간
10-05		스위스 Harcourt와 업무협약 체결
03-02		대우증권그린코리아 SPAC 아시아 최초 상장
2009	10-28	산은금융그룹 출범 및 최대주주 변경(산업은행 → 산은금융지주)
2008	11-17	북경 사무소 개설
	08-18	여의도 본사 사옥 재매입
	06-13	은행연계 전용 '다이렉트' 서비스 오픈
	02-19	말레이시아 CIMB 투자은행과 MOU 체결
2007	10-23	중국 인허증권과 MOU 체결
	11-06	베트남 호치민사무소 개설
	08-06	브라질 이타우 금융그룹과 MOU 체결
	07-13	인도네시아 eTrading 증권사 지분 출자
	05-04	대우증권 탁구단 '토네이도' 창단식
2006	01-16	일본 미쓰비시UFJ증권과 상호 업무협력 계약 체결
	07-30	국내금융업계 최초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인도네시아)
	07-03	동경사무소 개소
2002	10-11	업계 최초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 경영인가 획득
	05-16	최대주주 변경(제일은행 외 8개사 → 한국산업은행)
2000	01-20	전사적 자산관리시스템(ERP) 도입
	08-30	최대주주변경(대우그룹 → 제일은행 외 8개사)
1999	10-01	대우그룹에서 계열 분리
	08-30	최대주주변경(대우그룹 → 제일은행 외 8개사)
1994	09-29	홍콩현지법인인 Daewoo Securities (Hong Kong) Ltd. 설립
1993	10-23	과천정보센터 및 인력개발센터 준공
1992	07-07	뉴욕현지법인인 Daewoo Securities (America) Inc. 설립
1991	05-03	유럽현지법인인 Daewoo Securities (Europe) Ltd. 설립
1984	05-19	(주)대우경제연구소 설립(국내 최초 민간인 연구소)
1983	12-19	삼보증권(주)흡수합병
	10-24	상호 변경(대우증권주식회사)
1975	09-26	공모증자, 납입자본금 20억 원 기업공개
1973	09-01	대우실업(주)에서 회사 인수
1970	09-23	동양증권(주) 설립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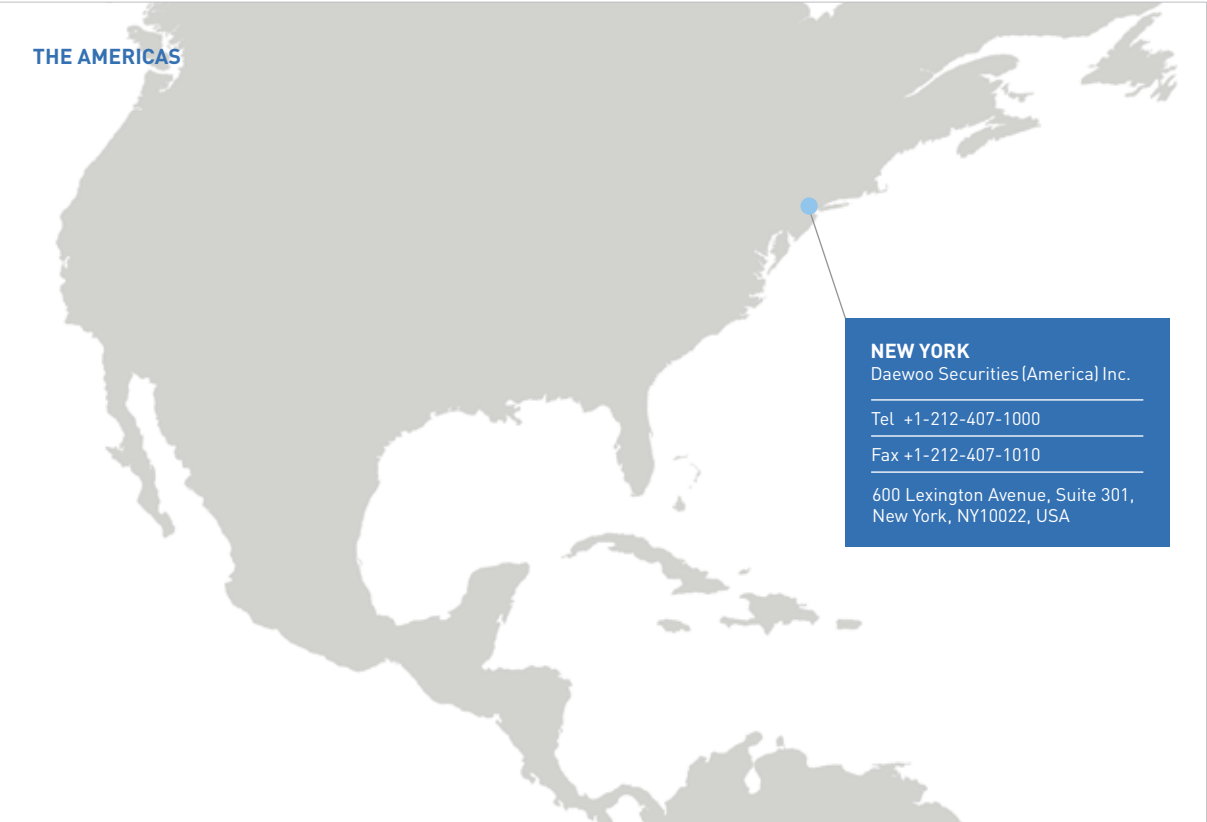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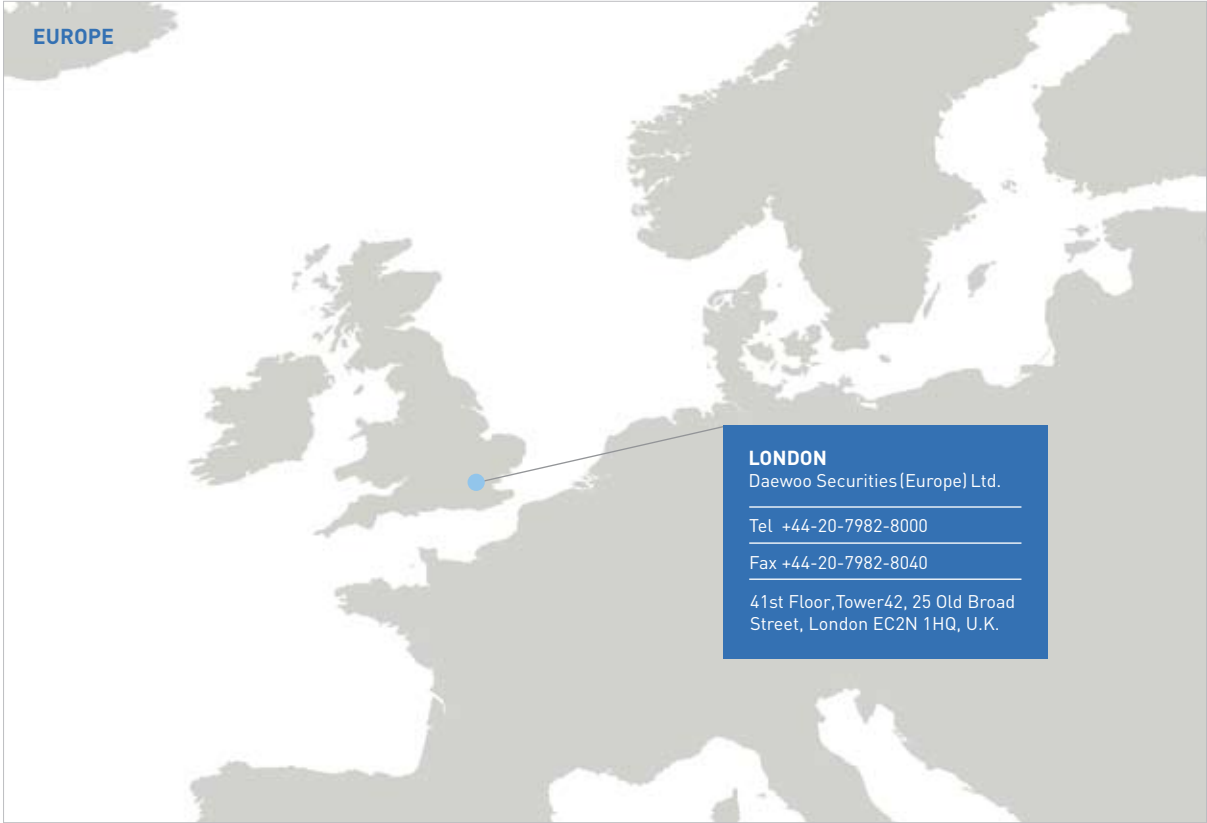
국내 지점 현황

지역명	지점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강북	PB Class 서울파이낸스	02-734-99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15층	
	WM Class 역전	02-774-1921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서울스퀘어빌딩 2층	
	건대역지점	02-454-8484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342 스타시티 더 클래식 500 3층	
	광화문지점	02-736-9170	서울 종로구 당주동 5번지 로얄빌딩 2층	
	마포지점	02-719-8861	서울 마포구 도화동 36 하나은행건물 고려아카데미텔II 3층	
	명동지점	02-777-5400	서울 중구 명동 59-19외 1 개양빌딩 6층	
	상계지점	02-934-2511	서울 노원구 상계 712-1 교보생명빌딩 4층	
	성동지점	02-2297-4466	서울 성동구 행당동 267-23 나라타워 3층	
	신촌지점	02-332-2321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72-21번지 거촌빌딩 3층	
	영업부	02-768-31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번지 KDB대우증권빌딩 1, 2층	
	이촌동지점	02-797-9696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7 한강소프센터 2층	
	장한평지점	02-2248-8700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5-2 금풍빌딩 1층	
	청량리지점	02-962-491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성일빌딩 1층	
	서울강남	PB Class 갤러리아	02-3445-9966	서울 강남구 청담동 79번지 THE TRINITY PLACE 4, 5층
		WM Class 강남	02-3429-007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5 남경센터빌딩 3층
		WM Class 도곡	02-573-5599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4 삼성엔지니어링빌딩 3층
		WM Class 목동중앙	02-2601-6191	서울 양천구 목동 962-1 트라펠리스 이스턴에비뉴 3층
WM Class 압구정		02-545-0361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4-3 용기빌딩 2층	
WM Class 역삼역		02-568-8866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5 이주빌딩 3층	
WM Class 잠실		02-412-5588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9 시그마 타워 4층	
WM Class 한티역		02-561-1133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번지 D_MARK빌딩 2층	
가락지점		02-3401-5544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8번지 IT벤처타워 동관 2층	
가산지점		02-811-3888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37 STX V Tower 2층	
강서지점		02-2691-5774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98-9 원풍빌딩 2층	
개봉동지점		02-2616-6655	서울 구로구 개봉동 157-13 도루코빌딩 2층	
관악지점		02-875-5454	서울 관악구 중앙동 32-8 통진빌딩 3층	
교대역지점		02-592-595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4-4 하림빌딩 2층	
대치지점		02-3411-3111	서울 강남구 대치동 599 대원빌딩 4층	
독산동지점		02-858-5511	서울 금천구 독산동 288-1 건국빌딩 2층	
목동지점		02-2649-0568	서울 양천구 목동 908-28 부영그린2차타워 2층	
반포지점		02-534-0142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레미안 퍼스티지 증심상가 4층	
방배동지점		02-3477-2251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1-6 소암빌딩 3층	
서초동지점		02-3474-838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20 대륜서초타워 1층	
송파지점		02-419-5160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6-5 대준빌딩 3층	
신논현지점		02-3478-2244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8-2 POSCO SS&CC타워 4층	
신사지점		02-3446-9966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외 1 렉스타워 1, 2층	
역삼동지점		02-556-9441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층	
영등포지점		02-2632-874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57 신한은행빌딩 5층	
올림픽지점		02-404-8851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20 올림픽선수촌APT상가 C동 2층	
테헤란밸리지점		02-564-3355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42 해상빌딩 1층	
경기도 인천		WM Class 서현	031-708-052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6 현대프라자 4층
		WM Class 동수원	031-224-012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센타빌딩 2층
		부천지점	032-667-771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번지 부천농협빌딩 5층
	부평지점	032-505-8451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5 금남빌딩 5층	
	분당지점	031-718-33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인텔리제킨스타워 2층	
	산본지점	031-394-0940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33-2 국민은행빌딩 3층	
	상동지점	032-329-663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4 가나베스타운III 3층	
	수원지점	031-245-4171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13-2 녹산빌딩 3층	
	안산지점	031-482-0055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5 BYC빌딩 3층	
	연수지점	032-813-5588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3-3 소망빌딩 2층	
	의정부지점	031-877-877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37-7 교보생명빌딩 2층	
	인천지점	032-763-4401	인천 중구 신생동 2-41 KDB대우증권빌딩 1, 2, 3층	
	일산지점	031-921-3101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71-1번지 태승빌딩 3층	
	주안지점	032-423-1100	인천 남구 주안동 77-7 KDB대우증권빌딩 3, 4층	

지역명	지점명	전화번호	주소
경기도 인천	평촌지점	031-386-2323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평촌아크로타워 A동 3층
	화정지점	031-938-991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2 홀인원 프라자 3층
강원	동해지점	033-532-3340	강원 동해시 천곡동 1078-3 동해빌딩 2층
	속초지점	033-636-3900	강원 속초시 교동 669-9 보광빌딩 2층
	원주지점	033-745-1651	강원 원주시 중앙동 232-1 SK브로드밴드빌딩 4, 5층
	춘천지점	033-251-8851	강원 춘천시 조양동 37-11 KDB대우증권 3, 4층
충청남도	아산지점	041-549-2233	충남 아산시 온천동 300-24 유엘시티 5층
	천안지점	041-562-0311	충남 천안시 신부동 365-1 포스코the# 상가 3층
충청북도 대전	WM Class 둔산	042-483-6555	대전 서구 둔산동 1413번지 파이낸스타워 2층
	대전지점	042-253-3301	대전 중구 은행동 139-1 한솔빌딩 2층
	용전동지점	042-627-4100	대전 동구 홍도동 9-5 부광빌딩 2층
	제천지점	043-642-6600	충북 제천시 중앙동 27가 29-2 대명빌딩 2층
	청주지점	043-250-331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9-3 KDB대우증권빌딩 1, 2층
경상북도 대구	WM Class 범어	053-751-0345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7-4 교직원공제회관 3층
	경산지점	053-811-2211	경북 경산시 중앙동 838-7 도원빌딩 2층
	경주지점	054-776-5533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번지 KT경주지사 1층
	구미지점	054-451-1511	경북 구미시 송정동 78번지 KDB산업은행 2층
	대구중앙지점	053-421-0141	대구 중구 동인동 2가 74-15 KT스마트메디타워 2층 KDB대우증권
	대구지점	053-424-0311	대구 중구 덕산동 96 덕산빌딩 3층
	상인지점	053-638-4100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12 상인프라자 2층
	성서지점	053-582-4567	대구 달서구 아곡동 1198-5 국민연금관리공단빌딩 4층
	안동지점	054-841-2266	경북 안동시 동부동 85-3 KDB대우증권빌딩 2층
	칠곡지점	053-325-5533	대구 북구 태전동 940번지 우영팰리스 2층
	포항지점	054-277-6655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203-10 KDB대우증권빌딩 1층
경상남도 부산 울산	PB Class 센텀시티	051-742-4747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25번지 대우월드마크센텀 상가 2층
	WM Class 범일	051-644-0077	부산 동구 범일동 828-1 KDB대우증권빌딩 1층
	WM Class 서면	051-806-6001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7-3 아이온시티 7층
	거제지점	055-688-0134	경남 거제시 옥포동 534-5 아주비즈니스텔 2, 3층
	김해지점	055-324-2421	경남 김해시 내동 1143-2 밝은메디칼센터 2층
	남천동지점	051-625-0120	부산 수영구 남천동 36-7 코오롱빌딩 2층
	녹산지점	051-941-227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31-4번지 JH빌딩 3층 (우리은행 3층)
	동래지점	051-554-4111	부산 동래구 수안동 552 KDB대우증권빌딩 2, 3층
	마산중앙지점	055-297-885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59-6번지 무학빌딩 2층
	부산지점	051-242-3351	부산 중구 중앙동 2가 44-1 한국산업은행빌딩 5층
	사상지점	051-327-8801	부산 사상구 괴법동 546-1 M-City빌딩 4층
	사하지점	051-293-6644	부산 사하구 하단동 528-11 삼성전자빌딩 2층
	울산남지점	052-258-7766	울산 남구 달동 1365-7 KDB대우증권빌딩 3층
	울산지점	052-244-8441	울산 중구 약사동 666-53번지 대호빌딩 2층
	진주지점	055-742-3444	경남 진주시 동성동 5-7 KDB대우증권빌딩 3층
	창원시티점	055-600-6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333번지 THE CITY7 교육문화센터 2층
	창원지점	055-282-69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4-3번지 KDB대우증권빌딩 2층
통영지점	055-643-8881	경남 통영시 무전동 1058-8번지 동인빌딩 2층	
해운대지점	051-743-1211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34-1 마리나센터 7층	
전라북도	군산지점	063-443-1711	전북 군산시 나윤동 100-14 유엔미프라자 2층
	익산지점	063-857-8811	전북 익산시 중앙동 1가 57 새난빌딩 3층
	전주지점	063-288-00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95 KDB대우증권빌딩 1층
	효자동지점	063-227-14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48 동아빌딩 1층
전라남도 광주	WM Class 광주	062-227-6605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62-17 KDB대우증권빌딩 1층
	두암동지점	062-267-8844	광주 북구 두암동 821-2 동강빌딩 5층
	목포지점	061-285-9911	전남 목포시 상동 868 일해빌딩 3층
	순천지점	061-724-4422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4-2번지 국민은행 2층 (우) 540-952
	여수지점	061-663-7997	전남 여수시 시청로 30 KDB산업은행 2층
제주도	제주지점	064-755-8851	제주 일도1동 143 KDB대우증권빌딩 2층

해외 영업망







[KDB대우증권 2011 회계연도 Annual Report]에 사용된 용지는 키아라(Kiara)입니다. 키아라는 책임있는 산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NGO인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이 승인하는 산림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증성지입니다. 본 용지는 펄프의 표백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염소도 사용하지 않아 다이옥신 발생을 예방한 용지이며, FSC Chain of Custody (인증번호 SGSJK-COC-010491)를 보유한 인쇄업체에서 콩기름 잉크로 인쇄했습니다.

KDB대우증권

IR INFORMATION

결산일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2년 6월 29일

CONTACT US

KDB대우증권 기획실 IR파트

150-7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빌딩

Tel : +82-2-768-3903/2103/3688

Fax : +82-2-768-2119

e-mail : irteam@dwsec.com

Website : <http://www.kdbdw.com>